오늘을 달리는 내일의 기술 *Driving Tomorrow*

헬로우 넥센

HELLO NEXEN MAGAZINE

여름호 2020 Vol.80

www.nexentire.com

HELLO NEXEN MAGAZINE
2020 여름호
넥센타이어

CONTENTS

N'exen

06 패 Ssion
78주년 창립기념사

08 넥센 Issue 1
업계최초 비대면 타이어 방문 장착 서비스

12 넥센 Issue 2
2020 타이어 어워즈 시상

14 넥센 Issue 3
사내 커뮤니티 '네모(NEMO)' 오픈

16 넥센 Issue 4
The Better R&D

18 넥센 Issue 5
노사 공동선언

20 넥센 Together 1
농촌으로 떠난 넥센인

22 넥센 Together 2
사랑의 헌혈 캠페인 활동

24 넥센 Together 3
더 넥센 유니버시티 한복판에서 자연을 만나다

28 넥센 Together 4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글로벌 캠페인 활동

N'dorphin

32 인사이드 Theme
더할수록 더해지는 열정으로

36 테마 Story
열정에 대한 고찰

40 인 Terview
인생을 트로트에 녹여낸 가수, 진성

44 엔 Joy
나와 내 가족에게 선물하는 완벽한 (집에서의) 하루

48 나의 Life Of Art
나의 인생작

52 컬처 Road
넥센인을 위한 문화생활

56 엔터 Travel
허균의 〈홍길동전〉 속 이상향, 부안 위도

62 넥센 Quiz
사보 속에 숨어 있는 정답을 찾아라

N'otice

66 설문 Survey
넥센인의 열정에 한 발짝 다가가기

68 챗 Chat
동료와의 에피소드 대방출

70 사진 Gallery
넥센인의 열정이 빛나는 순간

74 타이어 Tech
타이어테크 고색점

78 넥센 News

82 참여안내

2020 Vol.80

표지 이야기
일할 때도 열정으로, 놀 때도 열정으로,
모든 일에 Passion이라는 것을 더한다면
인생의 깊이는 확연히 달라집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꾸준하게
열정을 잃지 않고 미래를 개척해나가는
넥센인을 기대해봅니다.

오늘을 달리는 내일의 기술 ***Driving Tomorrow*** **NEXEN** 2020년 여름호 통권 80호
정보간행물 신고번호 양산, 바00008 **신고일자** 2016년 9월 29일 **발행인** 강호찬
발행일 2020년 7월 1일 **발행처** 경남 양산시 충렬로 355 넥센타이어㈜ **담당** 문화혁신팀
기획 및 출판 ㈜하이미디어P&I (02-795-3364) **디자인** 홍소녀 **사진** 사진과책 **교정** 이은실
프로세스 ㈜하이테크컴 (02-741-3377) **인쇄** 아트프린팅㈜

이 책에 쓰인 글과 사진은 작가의 의견에 따른 것으로 넥센타이어의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책에 쓰인 글과 사진을 재사용하려면 〈헬로우 넥센〉과 저작권자 양측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꼭 의미 있게 살아야 할 필요는 없지만
주어진 삶을 즐기지 못하는 건 슬픈 일입니다.
태울 것 하나 없는 마음 안에 불씨조차 없는 삶이라면
그 인생은 얼마나 허무할까요?

당신을 불행하게 하는 것은 부족한 현실이 아니라
부족하고 불편한 현실을 비관하는 자신입니다.
포기한다면 미래도 열정도 없습니다.
그저 살아지는 대로 시간을 흘려보내면 그뿐

하지만 마음 안에 작은 불씨를 만들고
그 불씨를 키워 활활 타오르게 만들 열정을 품게 된다면
당신의 인생은 그 순간부터 180도 변화할 거예요.

비관할 시간에 열정의 불씨를 찾아보세요.
그 불씨가 당신을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도록.

SUBSCRIBE

78th

올해 78주년을 맞이한 넥센타이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창립기념일 행사 대신 강호찬 부회장이 영상을 통해 기념사를 임직원에게 전했다.
강 부회장은 "임직원 여러분과 가족 모두의 안전에 더욱 유의하시길 바라며, 더불어 힘찬 응원을 보낸다"고 인사를 전한 다음 "길을 가다 돌이 나타나면 약자는 그것을 걸림돌이라 하고 강자는 그것을 디딤돌이라 말한다"라는 문구를 인용하여, "지금 겪고 있는 예기치 못한 위기는 우리가 좋은 포지션을 얻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이 상황을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로 삼아 그간 하지 못했던 재정비 시간이 주어진 거라 생각하며 긍정적인 마인드로 이 위기를 헤쳐나가자"는 메시지를 전했다. Ⓝ

업계최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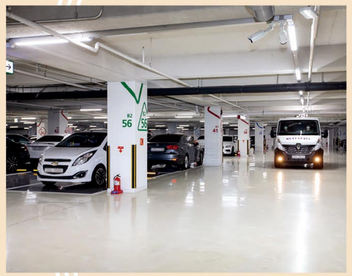
비대면 타이어 방문 장착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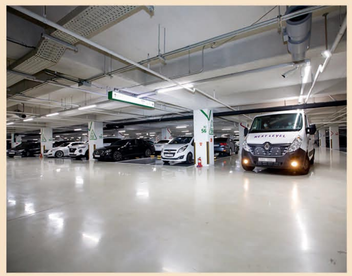
이젠 타이어 교체도 언택트다

타이어 전문가, 최첨단 장비. 이 모든 것을 갖추고 고객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로 직접 찾아가 타이어를 교체해주는 '넥스트레벨 GO'가 고객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업계 최초 비대면 타이어 방문 장착 서비스, '넥스트레벨 GO'의 차별화된 프리미엄 서비스는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과정을 낱낱이 공개한다.

정리 이다영 **사진** 이맹호

1





"부릉부릉"

타이어 전문가인 '넥스트레벨 GO 서비스 매니저'가
고객이 지정한 시간과 장소에 맞춰 건물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합니다.
바로 이곳에서 오늘의 서비스가 이루어질 예정인데요.
물론 고객은 서비스받을 차를 지정해준 위치에 두기만 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모두 '넥스트레벨 GO 서비스 매니저'의 몫이니까요.
자, 그럼 베테랑 서비스 매니저와 최첨단 장비로 무장한 최상의 서비스를 받아보실 준비가 되셨나요?

2

"철컥"

문이 열리고 넥스트레벨 GO 서비스 매니저들이 교체 서비스를
진행하기 위해 최첨단 장비를 준비하느라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3

"짜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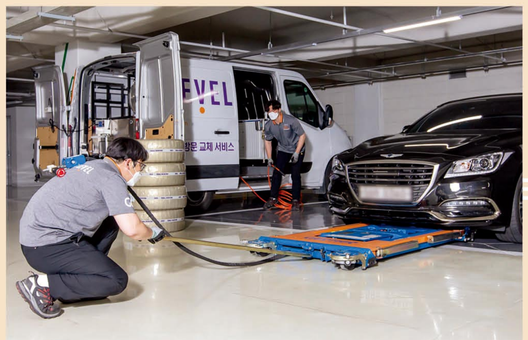
어떤가요? 이것이 말로만 듣던 최첨단 장비의
영롱한 실물입니다. 오늘 이 장비를 이용해
서비스 매니저들이 고객의 타이어를 완벽하게
교체해드릴 겁니다.

4 "차근차근"

효율적인 공간 활용이 아닐 수가 없네요.
교체 서비스에 필요한 장비들이 차 안에서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5 "세심하고 정확하게"

뭐든 허투루 하는 법이 없습니다. 고객의 차는 소중하니까요.
교체 작업을 위해 잠시 차가 공중으로 올라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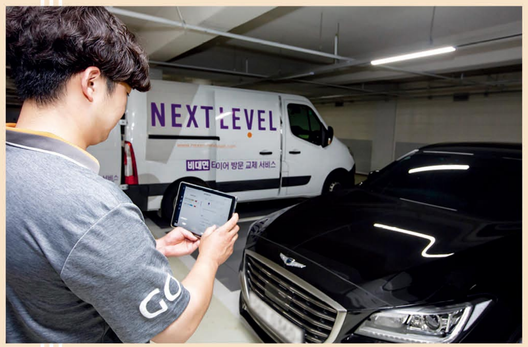


6 "Good job!"

느껴지시나요? 전문가의 향기~!

7 "마무리"

교체가 끝난 후에는 태블릿으로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이로써 모든 서비스가 마무리됐습니다. 수고해주신 서비스 매니저들께 박수!
'넥스트레벨 GO' 서비스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꾸준한 관심과 사랑으로 지켜봐 주시고 많은 이용도 부탁드리겠습니다. Ⓝ



2020 타이어 어워즈 시상

조금은 특별한 찾아가는 시상식

넥센타이어는 매년 대리점과 협력사를 대상으로 '타이어 어워즈'를 개최해왔다. 이는 지난 한 해 동안 국내에서 타이어 판매 확대를 위해 노력한 전국 대리점주들을 초대해 감사를 표하는 행사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직접 수상 대리점을 찾아가 시상 및 감사를 표했다. 아시아영업BG의 임원 및 팀장, 그리고 대리점주분들이 함께한 시상식. 소소했지만 특별한 그날의 순간을 사진으로 만나보자.

글·사진 아시아영업기획팀 이태섭 선임

대상
주식회사 다인

은상
일광산업

동상
119타이어

오케이휠타이어

논산타이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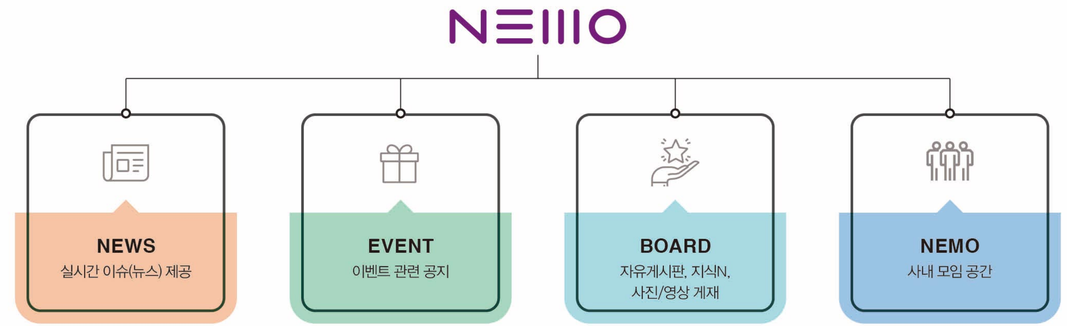
영업1팀 단체사진
(엔샵, 분당판교점, 한가온, 월드, 테크정비, 그린)

넥센타이어 임직원 간 소통의 첫걸음

사내 커뮤니티 '네모NEMO' 오픈

업무용 사내 포털 외 임직원 간 자유로운 소통과 교류의 공간을 위해 문화혁신팀에서는 임직원의 참여와 관심사를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티 제작을 모색했다. 그 결과 소통 활성화 차원으로 6월 1일 사내 커뮤니티 '네모(NEMO)'의 오픈이 실현됐다.

글 문화혁신팀 유재훈 책임



네모는 넥센인의 모임을 줄여 일컫는 말로, 임직원들이 자유롭게 소통하고 모임을 만들어가는 공간이다. 'Fun'을 콘셉트로 워드(Word)보다 이미지(Image) 중심으로 간결하게 제작했으며, 총 4개의 카테고리로 구성되어 있다. NEWS는 실시간으로 이슈(뉴스)를 포털 사이트와 연동해 제공한다. EVENT는 매월 임직원 대상 이벤트 관련 공지용으로 만들었다. BOARD는 정보나 이슈를 올릴 수 있는 자유게시판, 문의사항에 대한 지식N, 그리고 공유하고 싶은 사진이나 영상을 게재할 수 있는 사진/영상 총 3가지 카테고리로 되어 있다.

NEMO는 사내 모임 공간으로 취미, 운동, 특허 자격, 외국어, 맛집 먹방 등 다양한 주제로 나뉘어 있다. 넥센 임직원이라면 누구나, 언제나 자유롭게 개설 및 폐쇄가 가능하다. 모든 게시물은 공개로 운영되며, 게시물 및 댓글 작성은 가입 회원만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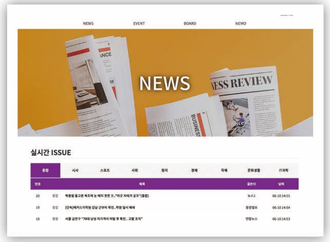
특히 6월에는 네모 오픈을 기념해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되었다. 먼저, 네모 오픈 축하 메시지로 '네모' 이행시를 지어 가장 추천 수가 많은 10명에게 1만 원 상당 모바일 음료교환권을 증정했다. 또한 회원 수 10명 이상 네모 동호회를 오픈한 최초 개설자 & 선착순 5명에게 각각 치킨 2마리와 1마리씩 제공했다. 여름을 맞이해 7~8월에도 시원한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으니 임직원들의 많은 참여가 예상된다. 사내 커뮤니티 공간에 가장 중점을 둔 'NEMO'는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동호회를 개설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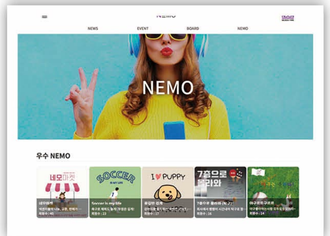
현재(6월 19일 기준) 22개 동호회가 개설되었으며, 270여 명이 네모 동호회에 가입되어 있다.

네모 동호회는 사업장 구분 없이 직급 막론하고 누구나 관리자로 운영할 수 있으며, 미풍양속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 별도의 제재 없이 오픈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사내 동호회와 차별된다. 사원부터 임원까지 공통 관심사가 있는 사람들끼리 공유하고 교류할 수 있어 수평적인 소통 문화가 형성될 수 있다.

오픈한 지 한 달 안 된 시점에서 예상보다 많은 임직원들의 반응에 기대가 크지만, 사내 커뮤니티 문화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자세가 필요하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온라인·모바일을 통한 소통과 교류의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본 취지는 온·오프라인에서 활발하게 임직원들이 소통하는 공간인 만큼, 코로나19가 진정되고 오프라인 모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시기가 온다면 진정한 'NEMO'가 자연스레 운영되지 않을까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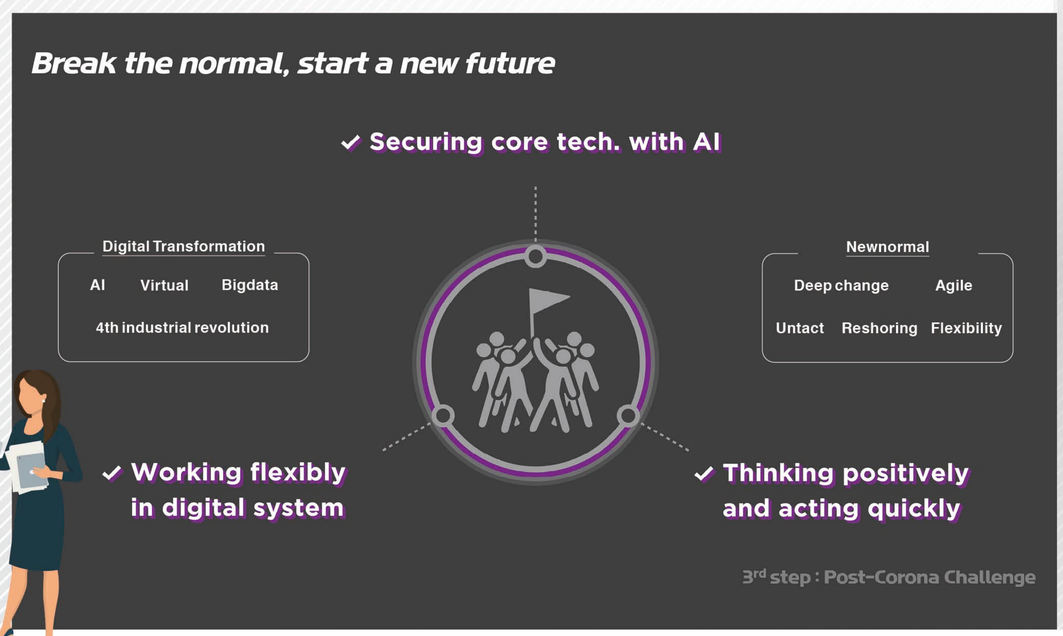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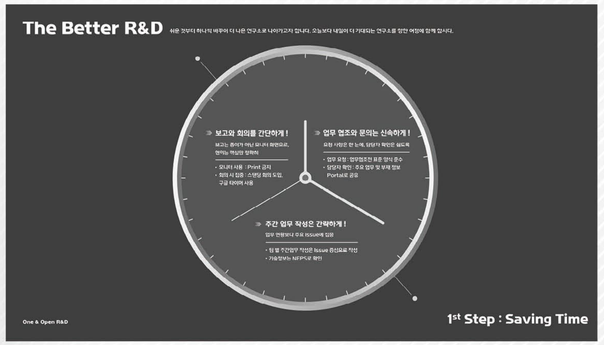
http://nemo.nexentire.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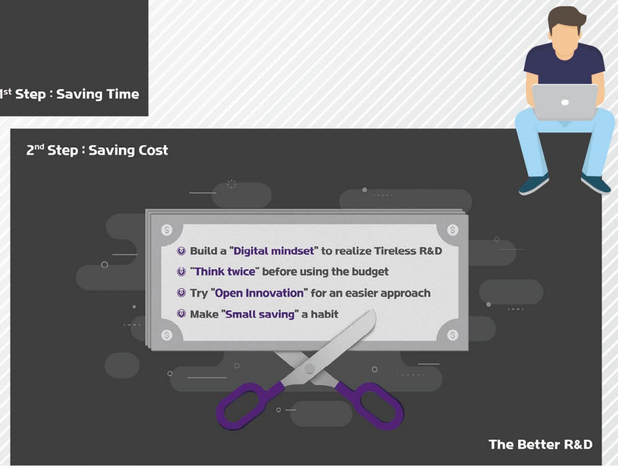
The Better R&D를 향한 연구소의 멈추지 않는 발걸음!

글 연구운영팀 김수민 연구원

The Better R&D는 연구원이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하나씩 바꾸어 함께 더 좋은 연구소를 만들어가자는 취지로 2019년 10월에 처음 시작하여 2020년 6월 세 번째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첫 번째 활동은 '1st step : Saving Time'으로 보고, 회의, 업무 연락 등의 공통 업무 효율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 제안했으며, 2020년 3월 '2nd step : Saving Cost'로 디지털 시뮬레이션과 외부 연구기관 활용 등 연구·개발 업무의 효율을 높이는 방법을 소개했다. 그리고 세 번째 활동으로는 코로나19에 따른 위기 상황에서 연구원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안내하는 '3rd step : Post-Corona Challenge'를 시행했다. 특히 'Post-Corona Challenge'는 코로나19로 변화된 상황에 빠르게 적응하여 위기를 극복하자는 메시지와 함께 3가지 아이템을 소개했다. 첫 번째 아이템은 'Securing core tech with AI'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미래 기술과 AI의 활용 방안에 대해 함께 공부하여 핵심 기술을 확보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두 번째 아이템은 'Working flexibly in the digital system'으로 뉴노멀(Newnormal), 비대면(Untact) 트렌드에 따라 오프라인이 아닌 시스템으로 일하고, 과거 데이터를 사전 검토하는 업무 습관을 갖자고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Thinking positively, and acting quickly'는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지친 연구원들에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함께 변화에 동참하자는 응원의 메시지를 담았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The Better R&D를 향한 여정은 계속된다.







우리함께극복해요.

코로나19 위기 극복

노사 공동선언

글 노사협력팀 팽치훈 선임

6월 10일 양산공장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 공동선언식이 개최됐다. 이번 노사 공동선언식에는 회사 대표로 이현종 아태지역대표, 양창수 BG장, 전용범 BS장, 김재돈 BS장과 노동조합 대표로 박주홍 위원장, 김종필 수석부위원장, 김경도 부위원장이 참석했다. 선언식은 노사 대표 인사말을 시작으로 공동선언문 낭독, 서명 순으로 진행됐다.

상기 노사 공동선언은 양산시 홈페이지(www.yangsan.go.kr) 및 유튜브에 게시되어 대외적으로 넥센타이어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 공동선언의 의미를 더욱 알릴 수 있었다. 이번 노사 공동선언을 계기로 코로나19로 인한 대내외 위기에 대응하여 상생과 협력의 정신으로 노사가 함께 위기를 극복해나갈 것이다. Ⓝ

농촌으로 떠난 넥센인

작은 보탬이 되려는 **따뜻한 마음으로**

6월 19일 창녕군 대합면 모전리에서는 넥센인들의 열정적인 농촌 봉사 활동이 펼쳐졌다.
일손이 부족한 농가를 찾아 일일 농부로 활약을 펼치며 비지땀을 흘린 넥센인들의 값진 노동의 현장을 함께해보았다.

글 이다영 **사진** 이맹호

볕이 좋은 6월의 어느 날, 창녕군의 일손 부족 농가를 돕기 위해 넥센인들이 발벗고 나섰다. 창녕공장의 팀별 관리직 중 자원으로 차출된 13명의 일일 농부들은 각각 장갑을 나눠 끼고 장비를 챙겨 거침없이 밭으로 들어가 봉사를 시작했다. 오전에 잠시 내린 비로 인해 땅이 질어 발이 푹푹 빠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해는 따갑게 내리쬐는 등 녹록지 않은 일의 연속이었지만, 넥센인들은 누구 하나 불평하는 소리 없이 묵묵히 할 일을 해냈다. 일손을 돕는 넥센인들을 구경하던 농가 주민은 기업에서 좋은 일을 한다며 연신 엄지를 치켜 올렸다.

꿀맛 같은 새참을 먹은 뒤에도 작업은 계속 이어졌다. 풀이 무성했던 자색양파 밭은 어느새 깔끔하게 손질되었고, 비닐 아래 숨어 있던 양파들이 모습을 드러내도록 뽑는 작업까지 모두 마무리되었다. 작업복과 신발은 진흙으로 엉망이 됐지만 넥센인들의 입가에는 마음에서 우러나온 밝은 미소가 걸려 있었다. 많은 인원은 아니었지만 허리 펼 새 없이 최선을 다한 이들만이 느낄 수 있는 뿌듯한 마음을 한가득 안고 돌아갈 수 있었던 값진 시간이었다. Ⓝ

사랑의 헌혈 캠페인 활동

작은 손길이 **큰 힘이 됩니다**

글 문화혁신팀 김희진 책임

마곡 중앙연구소

넥센타이어가 양산본사, 창녕공장, 중앙연구소 등 각 사업장에서 임직원이 참여하는 헌혈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코로나19으로 인해 부족한 헌혈 수급에 보탬이 되려는 취지에서 기획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대한적십자사의 혈액 보유량 적정량(5일분)이 현저하게 부족한 상황인 점을 고려한 것이다.

직원들은 마스크 착용, 발열 검사와 손 소독 등 감염병 예방 수칙을 지키며 헌혈 캠페인에 참여했다. 4월 14일에는 양산본사에서, 5월 14일에는 마곡 중앙연구소에서, 5월 20~21일에는 창녕공장에서 헌혈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단체 헌혈을 통해 따뜻한 마음을 나눴다. Ⓝ

양산본사

창녕공장

미디어 월과 자연의 만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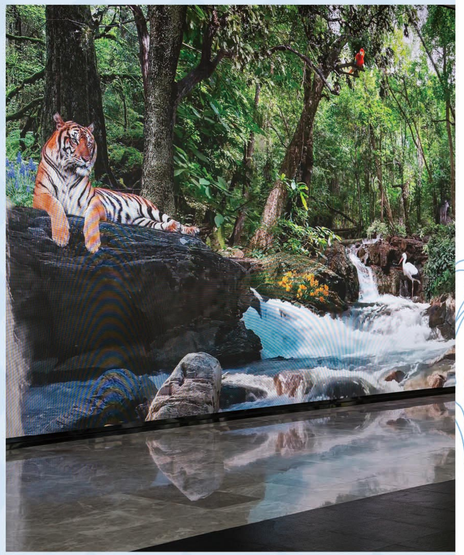
더 넥센 유니버시티 한복판에서 **자연을 만나다**

지루함은 가라! 매번 새로운 모습으로 더 넥센 유니버시티의 중심에서 내부를 아름답게 꾸며주는 미디어 월이 또 한 번 변신을 도모했다. 코로나19로 몸도 마음도 지친 넥센인에게 작은 힐링으로 전달될 아름다움 풍경. 마치 자연 속에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정교하게 제작된 미디어 월의 화면을 함께 감상해보자.

글 이다영 **사진** 이맹호

탁 트인 해변, 파란 바다와 하늘. 밀려들었다가 다시 뒤로 빠지는 푸른 바다의 파도를 보고 있노라면 마치 어느 휴양지의 해변에 온 듯한 착각마저 든다. 속상한 일이나 잘 안 풀리는 일이 있다면 이 해변을 잠시 감상하며 마음의 휴식을 얻어보는 건 어떨까?

우거진 수풀 사이로 시원하게 떨어지는 폭포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자. 압도적인 화면에서 쉴 새 없이 떨어지는 폭포의 물줄기에 마음속 근심 걱정이 쓸려가는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한 가지 화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는 여러 장면들이다.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안개가 끼고 비가 오는 장면에서 촉촉하게 젖어드는 감성 또한 놓치지 말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비가 그치고 아름답게 화면을 장식하는 무지개는 가히 화룡점정이라 할 만하다.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듯한 밀림 속 동물들이 당신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웅장한 화면 속에서는 폭포수가 떨어지고 실제 자연 속으로 들어온 듯한 느낌을 줄 정도로 생생한 동물들이 자연을 만끽하고 있다. 이곳은 분명 도심 한가운데인데 내셔널 지오그래피의 한 장면이 눈앞에서 펼쳐진다. 작은 움직임이지만 디테일이 살아 있는 호랑이, 당신을 조용히 응시하고 있는 치타, 나무 위의 앵무새 등 수풀 속 동물들을 하나하나 찾아보며 자연의 생동감을 함께 느껴보자.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글로벌 캠페인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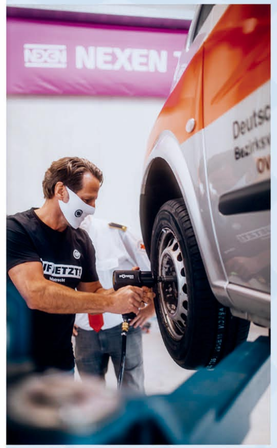
넥센타이어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글로벌 캠페인을 진행했다. 공식 파트너인 EPL의 '맨체스터 시티 FC', 독일 분데스리가의 '아인트라흐트 프랑크푸르트'와 함께한 캠페인을 들여다보자.

글 문화혁신팀 김희진 책임

넥센타이어는 맨체스터 시티 FC(맨시티)와 함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글로벌 응원 메시지를 전했다. 4월 21일 넥센타이어는 공식 홈페이지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맨시티 선수들의 응원 메시지를 담은 영상 캠페인을 전개했다. 영상은 리야드 마레즈, 리로이 자네, 주앙 칸셀루, 니콜라스 오타멘디, 에데르송 모라에스 등 맨시티 선수 5명이 자택에서 머물며 찍었다. 이들은 "모두가 안전에 유의하길 바란다", "우리는 이 시기를 함께 극복해낼 수 있을 것"이란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 영상은 국내는 물론 해외 법인 및 지사, 글로벌 거래처 등에 전달되어 코로나19 사태를 함께 이겨내자는 응원 메시지가 전 세계에 전파되었다.

이어 넥센타이어는 5월 14일 아인트라흐트 프랑크푸르트 구단과 함께 지역사회 단체에 타이어를 기부했다. 넥센타이어 유럽 법인은 독일적십자사, 대학병원 등 힘든 시기에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단체에 보탬이 되고자 이러한 캠페인을 진행했다. 전 아인트라흐트 축구 스타 우베 빈더발트와 알렉산더 슈어가 직접 타이어 장착 서비스까지 해줘 큰 관심을 받았다.

한편 넥센타이어는 지난 2월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에 2억 원을 기탁했다. 전달된 기부금은 방역물품 지원과 긴급 구호물품 지급, 자가격리자 생필품 등에 쓰였다. Ⓝ



가난한가요?
그렇다면 조금 더 풍요로운 삶을 위해 열정을 태워보세요.
불행한가요?
그렇다면 조금 더 행복한 삶을 위해 열정을 태워보세요.
더 나은 것, 더 좋은 것, 더 행복한 것에 대한 열정을
끊임없이 품어보세요.

열정은 곧 가능성입니다.
당신이 열정을 품게 되는 그 순간부터 새로운 가능성이 열립니다.
열정은 당신을 그 어떤 것으로도 만들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
그 자체입니다.

당신 자신만의 열정을 따르고 그 열정을 통해 기쁨을 느껴보세요.
그렇게 활활 타오르다 보면 어느새,
가능성의 꼭대기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인생의 무기가 되는 열정의 힘

더할수록 더해지는 열정으로

"수많은 능력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면 열정을 택하라.
그만큼 열정의 힘은 대단하다."

우리가 살면서 '저 사람은 뭔가 좀 달라', '와 대단하다'라고 느낀 사람들은 대부분 'Passion(열정 : 어떤 일에 열렬한 애정을 가지고 열중하는 마음)'이라는 무기를 장착한 자들이다. 활기차고 에너지 넘치며 뭘 해도 될 것 같은 이들의 강력한 무기, Passion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한다.

글 이다영

Passion

열정, 열정. 말로는 쉽지만 얼핏 꼰대스럽기도 한 이 단어를 삶에 적용시키기란 쉽지 않게 느껴진다. 도대체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며, 무엇을 위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하루하루 그저 똑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는 이들에게는 멀게만 느껴지는 열정이라는 이름. 하지만 조금 멀게 느껴진다고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는 하루를 좀 더 즐겁게 소비할 수 있는 열쇠이자 삶의 큰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열정은 당신의 마음 안에 확실하게 존재한다. 아직 스파크가 튀지 않았을 뿐, 당신만의 열정은 조용히 웅크려 작은 불씨가 일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불씨를 일으켜 인생을 열정의 현장으로 만들어갈지, 그럭저럭 안주하며 기복 없는 인생을 만들어갈지, 선택은 자유다. 당신은 무엇부터 시작하고, 무엇을 위한 열정으로 살아갈 것인가?

Attempt

열정, 일단 시도하라

"시도는 해보았는가?
한데 실패했는가?
그렇다면 다시 시도하고 다시 실패를 맞이하라.
그리고 더 나은 실패를 경험하라."

인생의 가장 상위 가치에 위치해야 하는 것은 행복이 아닐까 싶다. 모든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며, 죽기 직전 펼쳐지는 인생의 파노라마 속에서 아쉬움과 후회가 없길 바란다. 그리고 이 아쉬움과 후회는 경험의 유무에서 비롯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무언가를 시도한 뒤에 남은 실패와 후회보다 하지 않았을 때 남는 아쉬움과 후회는 훨씬 크다. 죽음을 제외한 모든 경험은 우리의 인생에 어떤 식으로든 그 흔적을 남기고 앞으로의 선택을 좌우할 데이터베이스로 작용한다. 인생은 곧 경험하는 것이며, 모든 것은 경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말이다.

'저 사람은 특별해요. 난 저렇게 될 수 없어요.' 자신이 평범하다고 생각하는 대다수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을 보며 이렇게 생각하고 좌절한다. 하지만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다르다. '계속 시도하고 제가 즐거움을 느끼는 일에 열정을 더해서 달려왔을 뿐이에요.'

'성공한 사람들은 나와 다른 특별한 사람들'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자신을 작아지게 만들고 있다면 일단 나만의 열정을 찾는 것부터 시작해보자. 성공한 그들이 대단한 사람인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당신과 다른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 그들은 당신보다 조금 더 일찍 많은 것을 시도하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신이 행복해질 수 있는 무언가에 끊임없는 열정을 쏟은 것뿐이다.

Possibility

열정, 무한한 가능성을 꿈꿔라

"우리의 열망이 우리의 가능성이다."
–새뮤얼 존슨–

열정의 다른 말은 가능성이다. 당신이 열정을 품지 않는다면 가능성 또한 가질 수 없다. 당신의 변화 없는 삶에 만족하고 죽는 그날까지 후회와 아쉬움을 가져가지 않을 수 있다면 그것도 그 나름의 행복이겠지만, 당신 안에 잠재되어 있는 무한한 가능성은 아마도 빛을 보지 못한 채 사장되어버릴 것이다. 자신의 성장을 원하고 그에 따른 성취감과 만족감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다면 내가 품은 열정은 곧 가능성이 되며 목표로 이어진다.

목표가 있는 열정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어떤 일에 열정을 가지고 부딪쳐나간다면 곧 다음 스텝을 꿈꾸게 된다. 그렇게 당신의 열정은 새로운 목표를 생성해가며 발전하고 도약해나갈 것이다. 당신은 무엇이든 될 수 있다. 당신 자신을 위한 열정은 당신의 가능성을 한층 더 높여줄 것이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흥미진진하고 행복한 인생을 선물할 것이다. 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가? 당신 자신을 믿고 더 행복하고 진취적인 삶을 꿈꿔라. 당신은 충분히 그럴 만한 가능성과 열정을 지닌 사람이다. 포기하지 않고 즐기며 노력한다면 열정은 당신 인생에 훌륭한 연료가 되어 당신을 더 큰 가능성으로 이끌 것이다. Ⓝ

열정에 대한 고찰

열정, 무리 또는 꾸준함

열정, 한 사람의 긴 인생에서 '열정'이라는 것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 삶에 큰 영향을 끼친다.
다양한 사람들의 수만큼이나 다양한 열정. 여행하며 사진을 찍고 글을 쓰는 최갑수 작가가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여정에서 만날 수 있었던 열정에 대한 이야기를 당신에게 전하고자 한다. 그가 여행하며 사진을 찍으며 글을 쓰며 살아온 인생에서 느낀 열정은 어떤 모습일까?

글 최갑수 여행작가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었던 '무리함'

서른다섯 살 무렵, 베트남과 라오스 북부 지역을 오토바이를 타고 여행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무모한 나날이었다. 오토바이에 커다란 배낭과 카메라 가방, 삼각대까지 싣고 다녔으니 말이다.

여행작가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사진 욕심이 많았던 시절이었다. 남들보다 좋은 사진을 찍기 위해 끼니를 거르며 스폿을 찾아다녔다. 지금이야 35mm 렌즈를 단 작은 카메라 하나만 달랑 들고 다니지만, 그때는 보디 2대에 렌즈 4~5개가 든 가방을 어깨에 둘러메고 쏘다녔다. 무게가 15kg이나 나갔지만 무거운 줄도 몰랐다.

왜 오토바이를 타고 그 고생을 했을까, 왜 그 무거운 카메라 가방과 삼각대를 오토바이에 싣고 다녔을까, 지금 와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이유를 모르겠다. 다만 지나치게 열정적이었다는 건 분명하다. 열정이 아니었다면 나는 쏟아지는 스콜 속에서 오토바이 바퀴가 진흙탕에 빠져 고생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다리를 다치지도 않았을 것이고, 칼을 든 원주민에게 쫓기지도 않았을 것이다. 청춘이라는 단어가 생물학적 나이의 어느 한 시기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 대한 열정과 무리함의 함량으로 정의할 수 있다면 아마도 서른다섯, 그때가 나의 청춘이었다.

지금 그 여행을 다시 하라고 하면 "내가 그걸 또 왜 합니까" 하며 손사래를 칠 것이다. 하지만 당시에는 그게 최선이었다. 무엇을 위한 최선이었는지는 딱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인생을 사용하는 최선의 방법이었던 것 같다. 숨이 턱 밑까지 차오르도록 달리고 또 달렸던 그 시절.

지금 그 시절을 떠올리면 '그땐 열정이라는 게 있었지' 하며 얼음 든 위스키 잔을 빙그르르 돌리게 된다. (아, 오해 마시길. 지금도 열정은 분명히 있다.) 그 시절의 열정은 '무리'라는 방식으로 나타났다. 무리(無理). 사전적 의미는 '도리나 이치에 맞지 않거나 정도에서 지나치게 벗어난다'는 뜻이다. '무리하다', '무리다' 등등 어떤 일을 하기 어려울 때, 불가능하게 여겨질 때 이 말을 쓴다. 하지만 이 말은 때때로 하기 싫을 때 '핑계' 대신 사용하기도 한다.

최갑수

문학동네 공모전에 시 〈밀물 여인숙〉이 당선되면서 문단에 나왔다. 일간지와 잡지사에서 여행 담당 기자를 하며 '직업'으로 여행을 다니기 시작했다. 지금은 여행작가로 살고 있다. 여행을 다니며 글을 쓰고 시를 짓고 사진을 찍고 음악을 듣는다. 여행을 가지 않을 땐 여행을 생각한다. 지은 책으로 시집 〈단 한 번의 사랑〉이 있고, 여행산문집으로 〈행복이 오지 않으면 만나러 가야지〉, 〈우리는 사랑 아니면 여행이겠지〉, 〈밤의 공항에서〉, 〈잘 지내나요, 내 인생〉 등이 있다. 개인전 〈우리는 사랑 아니면 여행이겠지〉, 〈밤의 공항에서〉를 열었다.

어쨌든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 무모했던 행동들이 지금의 나를 있게 한 것 같다. 일에서의 무리, 사진에서의 무리, 여행에서의 무리. 운전면허도 없던 사람이, 카메라 셔터를 찾지도 못하던 사람이 20년 동안 여행작가를 하며 삶을 꾸릴 수 있었던 건 '무리했기' 때문이다.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다면 무리한 일은 되도록 안 하는게 좋겠지만, 그래도 처음 시작할(젊을) 때는 조금 무리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 더 이상 못 하겠다고 주저앉는 순간, 그 순간 이를 악물고 다시 일어서서 1m를 전진하는데, 그 1m가 바로 실력이 되어 쌓인다. 내게 모자란 부분을 그 '무리'를 통해 채워 넣을 수 있는 것이다.
무리하면 피곤하다. 힘들다. 알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무리했던 시도와 행동을 통해 내가 깨닫게 된 건 '감정은 사라지고 결과는 남는다'는 것이다.

계속 성장해나갈 수 있게 하는 '꾸준함'

그 시절에서 20년을 지나온 지금 내게 열정은 '꾸준함'의 또 다른 말로 다가온다. 작가 생활을 하며 대단한 작품을 만든다는 생각을 안 한 지는 오래됐다. 내게 써야 할 글은 해야 할 일일 뿐이다. 아침에 억지로 일어나 세수를 하고 만원 지하철을 타고 직장으로 출근하는 회사원처럼, 새벽 4시에 일어나 졸린 눈으로 커피를 마시며 맥북을 열고 억지로 자판을 두드린다. 회계사가 장부를 메워가듯 워드 프로그램에 한 글자 한 글자 단어를 입력한다. 원고지 1,000매를 쓰는 방법은 일단 원고지 1매를 쓰는 것이다. 그리고 또 1매를 쓰고 또 1매를 쓰고, 1,000매가 될 때까지 1매씩 쓰는 방법밖에 없다. 목적지에 닿기 위해서는 왼발 앞에 오른발을 두고 다시 오른발 앞에 왼발을 둬야 한다. 이걸 무수히 반복하다 보면 결국 목적지에 닿는다.

> 열정은 꾸준함과 반복의 또 다른 말이다.

끊임없이 원고지 1매를 쓰는 일, 이것을 우리는 작업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 작업을 하는 사람을 우리는 작가라고 부른다.
무라카미 하루키는 그의 책 〈직업으로서의 소설가〉에서 이렇게 말했다. "'쓸 수 있을 때는 그 기세를 몰아 많이 써버린다, 써지지 않을 때는 쉰다'는 것으로는 규칙성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타임카드를 찍듯이 하루에 거의 정확하게 20매를 씁니다." 소설가 이언 매큐언도 이렇게 말했다. "저는 사무원처럼 일합니다. 다른 몇몇 작가들은 이런 식의 설명을 모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걸 받아들입니다. 저는 마치 사무원처럼 일해요." 소설가 필립 로스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글을 씁니다. 아침, 오후, 거의 매일 글을 씁니다. 제가 2년 내지 3년 동안 그렇게 앉아 있으면, 마침내 한 편의 작품이 완성되지요."
우리가 작가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하루에 100매를 쓰고 열흘을 쉬는 사람이 아니다. 그들은 3년 동안 매일 10매씩 쓰는 사람이다. 그 작업을 하는 동안 그들은 고독하고 외롭다. 때로는 절망 속에 허덕인다. 그래도 어쩔 수 없다. 계속 써가는 수밖에. 꾸준하게 달리다 보면 어느 순간 달리기 기량을 갖춘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약간이나마 수월하게 달릴 수 있는 요령도 생긴다. 이 과정에서 기쁨이라는 감정도 느낀다. '어떻게 하다 보면 되겠지'라는 자세로는 아무 일도, 어떤 성취도 생기지 않는다. 일을 오래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기계적인 습관이다.
산다는 건 장기전이다. 앞으로 나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왼발 앞에 오른발을 두고, 다시 오른발 앞에 왼발을 두는 것이다. 뭔가를 계속해서 만들어야 한다는 고단함과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방법은 아이러니하게도 계속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밖에 없다. 그러니까 열정은 꾸준함과 반복의 또 다른 말인 셈이다. Ⓝ

끈기와 인내의 끝에 맞이한 전성기

인생을 트로트에 녹여낸 가수, 진성

35년. 가수 진성이 무명 시절을 견뎌낸 세월이다. 서럽고 고독한 무명 세월을 버텨낼 수 있도록 그를 지탱해준 것은 바로 끈기라는 이름의 열정이었다. 이제는 지긋한 흰머리와 조금 더 많은 주름을 가지게 된 그가 포기하지 않고 우직하게 걸어온 인생길은 어떠했을까?

글 이다영 사진 이맹호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마"

진성의 노래 '태클을 걸지 마'의 후렴구 가사다. 올해 61세를 맞이한 그의 노래 가사에는 그의 인생이 녹아 있다. 어린 시절 겪은 부모로부터의 외면, 친척집을 전전하며 눈칫밥 먹던 세월, 끝이 보이지 않던 긴 무명 시절, 빛을 볼 때쯤 찾아온 병. 그의 인생을 거쳐간 태클은 셀 수 없이 많았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분명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묵묵하게 버텨내는 것을 선택했다. 그리고 그가 견딘 세월에 대한 보상은 느리지만 확실하게 찾아왔다.

버텨낸다는 것

트로트에 엄청난 관심이 쏟아지면서 가수 진성 또한 떴다. 〈미스터 트롯〉을 시작으로 〈트롯신이 떴다〉, 〈밥은 먹고 다니냐?〉, 〈편스토랑〉 등 방송을 종횡무진하며 최고의 전성기를 맞고 있는 그에게 향하는 대중의 관심과 애정은 대단하다. 현재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그의 성공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노래를 사랑했고 노래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운명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대중은 냉정했고 무명의 시간은 끝이 보이지 않을 듯 길어졌다. 어려운 시간의 연속이었지만 포기하거나 내려놓을 마음은 끝끝내 먹지 않았다. 결손 가정에서 자란 어린 시절, 그 나이에 알지 말아야 할 고독과 슬픔을 너무 일찍 알아버린 그에게 노래는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원동력이자 동반자였기 때문이다. 노래에 대한 사랑과 우직한 끈기. 이것을 놓치지 않고 버텨온 그는 2012년 '안동역에서'라는 곡이 대중에게 알려지고 사랑받으면서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다.

이제 인생이 술술 풀리나 했건만 또 한 번 그를 찾아온 태클은 몸의 병, 혈액암이었다. 세상이 원망스럽고 왜 자신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는지 분노까지 일었다. 그래도 그는 역시 버텼다. 버티고 또 버텼다. 기적 같은 완치는 없었지만 부단한 노력으로 현재는 호전된 상태라 방송 스케줄을 소화하기에도 무리가 없을 정도다. 포기하지 않고 버텨온 그는 현재를 감사할 줄 알고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더 단단해졌으며, 아직 건재하다.

오늘 하루를 기적이라 여기며 이제는 자신이 갖게 된 여유를 남들에게 베풀며 살고 싶다는 그. 여전히 그를 사랑해주는 팬들에게 그가 추구하는 음악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그는 오늘도 열심에 열심을 더해 신중하게 노래한다.

> 거짓 없이 자신과 마주하세요.
> 편견을 갖지 않고 솔직하게
> 나를 들여다보면
> 그 속에는 분명 당신만의
> 순결한 열정이 존재할 겁니다.

거짓 없이 산다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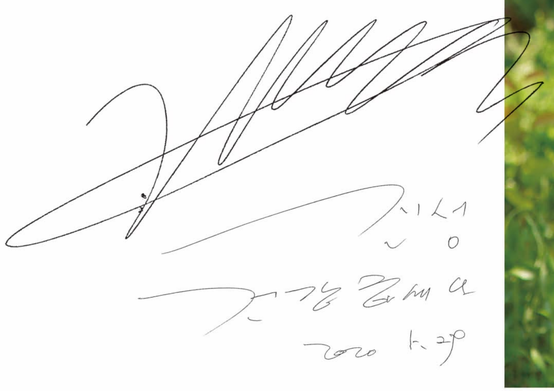
"꾸밈없고 솔직한 시골스러움을 대중이 많이 좋아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건 제가 그렇게 해야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솔직한 저 자체예요. 몸에 밴 것들이 자연스럽게 보이는 거죠."

진성은 자신의 솔직하고 촌스러운 모습이 대중에게 좋게 비치는 데 대해 얼떨떨해하면서도 흐뭇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면서도 주변의 평가와 시선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내면을 가꿔 겸손함을 잃지 않으려 노력하며 소신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그는 지금의 영상 미디어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다며 자신의 외모에 대해 혹독한 자기 평가를 내리기도 한다. 하지만 외모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만큼 완성도 있는 무대, 시선이 머물 수 있는 무대를 만들기 위해 흥이 이끄는 대로 날것의 퍼포먼스를 구사한다. 입술을 엄지로 스윽 쓸기도 하고, 노래 중간중간에 엄지를 허공에 찍기도 한다. 또 노래의 클라이맥스에서는 점프도 불사하며 무대에 대한 열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있는 그대로를 표현해 흥을 끌어올리는 그의 퍼포먼스는 감탄을 자아낼 정도는 아니지만 관객이 그의 무대에 더 빠져들고 즐길 수 있도록 하기에는 충분하다.

거짓 없는 솔직한 모습 외에 그가 대중의 사랑을 받는 데 한몫한 것으로 노래 가사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그의 곡 중에는 직접 작곡을 하거나 가사 작업을 한 것들이 많다. 대표적으로는 배곯던 시절을 떠올리며 작사한 '보릿고개'와 무시당하던 때의 설움을 노래한 '동전인생', 그리고 작사에 작곡까지 완벽하게 해낸 '태클을 걸지 마'까지. 이 노래들은 모진 세상 풍파를 맞아가며 살아온 그의 삶의 이야기를 그대로 옮겨왔다고 해도 될 정도로 표현이 솔직하고 거침없다. 그런 곡들을 그가 불렀을 때 듣는 이에게 그 감정이 여과 없이 전달된다. 거기에서 전해지는 것이 바로 감동, 카타르시스다. 이러한 인생 여정을 바탕으로 아직 삶에서 자신의 열정을 찾지 못한 사람들에게 거짓 없이 자신과 마주하라고 조언한다. 진실되게 또 편견 없이 자신을 들여다본다면 그 속에서 분명 순결한 나만의 열정을 찾게 될 것이라 이야기하는 그에게서는 경험에서 우러나온 확신이 느껴졌다.

인생의 굴곡을 제대로 느끼며 때론 좌절도 했지만 버티고 부딪쳐 지금의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그는 진심을 다해 오늘을 마주한 것처럼 거짓 없이 진실되게 내일 또한 마주할 것이다. Ⓝ



나와 내 가족에게 선물하는 완벽한 (집에서의) 하루

즐거운 나의 집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집순이 집돌이들을 위한 헌정곡 '즐거운 나의 집'의 한 소절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외부 활동을 자제해야 하는 현 시점에서
답답함을 이겨내고 정신승리를 유도하기에 아주 적합한 곡이 아닐까 싶다.
그렇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야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답답함은 이제 잊어라.
당신과 당신의 가족은 집 안에서도 충분히 즐거울 수 있다.

글 이다영

세상엔 즐거운 것이 너무나도 많다.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는 것도 즐겁고 맛집을 탐방하는 것도 즐겁다. 예쁜 카페도 물론 빼놓을 수 없으며, 분위기 좋은 곳에서의 한잔 역시 생각만으로도 마음을 들끓게 한다. 이 모든 야외 활동에 제약이 생긴 지금, 당신은 괴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가? 그렇다면 생각의 반전을 꾀해보자. 집 밖을 나서야만 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했던 것들을 집 안에서 즐겨보는 환상적인 기획, 홈캉스! 나갈 수 없는 이 상황을 답답하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당신은 집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을 할 수 있다. 마음만 먹는다면 말이다.

혼자지만 괜찮아, 난 즐거워!

1인 가족의 홈캉스

스토리에 빠져들고 싶다면 홈극장

혼자라서 즐거울 수 있는 것은 생각보다 많다. 영화관에서 남과 함께 영화를 볼 때 훅훅 치고 들어오는 질문에 짜증 날 일 없는 나만의 1인 홈극장이 그 첫 번째다. 오로지 필요한 것은 누울 곳과 스마트폰뿐. 내가 눕는 그곳에서 나만의 극장이 완성된다. 극장 분위기를 내고 싶다면 옷을 갖춰 입고 소파에 앉아 정자세로 TV를 켜보자. 빵빵한 에어컨, 커튼을 치고 조명을 끈 어두운 실내. 여기가 바로 영화관 아닐까? 넷플릭스, 왓챠 등의 플랫폼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 준비해두면 기분이 UP : 어두운 실내, 캔맥주, 취향에 맞는 과자

시간을 때우고 싶다면 홈피씨방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지만 체감 시간은 각자 다르게 느낄 수 있다. 미친 듯이 빠른 체감 시간을 느끼고 싶다면 컴퓨터를 켜보자. 컴퓨터만 준비되어 있으면 남은 것은 단 하나. 취향에 맞는 게임을 선택하는 것이다. 세상엔 많은 게임이 존재하고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는 당신에게 있다. 단, 주의할 점은 지키기 힘든 약속이라도 일단 컴퓨터 사용 시간을 정해두는 것이 좋다. 너무 많은 시간 게임에 빠져든다면 중독을 일으킬 수 있으며, 컴퓨터를 껐을 때 자괴감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 준비해두면 기분이 UP : 피씨방 분위기를 낼 수 있는 게임용 헤드폰, 사양 좋은 컴퓨터, 양은 냄비에 라면 혹은 짜파게티

피로를 풀고 싶다면 홈스파

오랜 전자기기 사용으로 몸이 찌뿌드드하고 피로가 쌓인 듯한 느낌이 든다면 스파를 즐겨보자. 욕조에 따끈한 물을 받고 그 안에 몸을 누이면 하루의 피로가 씻은 듯이 날아가는 기분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심신을 안정시킬 좋은 향의 입욕제를 첨가한다면 기분까지 UP, UP! 워시오프 타입의 보습용 팩을 듬뿍 바른 후 입욕을 즐기면 피부 광택까지 덤으로 얻을 수 있다.

– 준비해두면 기분이 UP : 욕조 반신욕 트레이, 예쁜 색의 향 좋은 입욕제, 와인, 간단하지만 맛있는 안주(견과류, 초콜릿, 치즈 등), 아껴뒀던 드라마나 영화, 예능

대화할 수 있잖아, 우린 즐거워!

2인 가족의 홈캉스

허기지다면 홈스토랑

우리는 마음만 먹는다면 레스토랑 못지않게 차려진 음식을 집에서도 즐길 수 있다. 요리에 쏟을 수고 걱정은 접어라. 마트에서 당신의 입맛에 맞는 온갖 소스를 구할 수 있다. 입맛 당기는 음식을 정했다면 오늘만은 제대로 차리고 준비해 먹어보자. 라면을 먹는다 해도 제대로 된 세팅은 만족감을 높여준다. 집에서 내가 준비한 요리니 돈도 필요 없다. 그리고 당신 앞에 앉아 함께 음식을 먹어줄 이가 있다는 것. 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 준비해두면 기분이 UP : 예쁜 식기

목마르다면 홈카페

밥을 먹었다면 식후 커피는 기본 중의 기본. 함께 밥을 먹은 사람과 도란도란 이야기를 하며 따뜻한 혹은 시원한 차를 마셔보자. 이 카페에서 당신을 방해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물론 돈을 낼 필요도 없다. 둘만의 카페에서 즐거운 대화를 나누거나 함께 독서를 해보는 건 어떨까? 카페 분위기에 취한다면 어렵게 느껴졌던 완독을 실현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 준비해두면 기분이 UP : 예쁜 머그컵, 맛있는 후식, 읽고 싶었던 책

분위기에 취하고 싶다면 홈바

바깥 풍경이 어둑어둑 서서히 어둠이 내려앉고 있다면 찬장에서 아껴뒀던 술을 꺼내보는 것은 어떨까? 술 종류에 맞는 안주를 미리 배달시켜두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된다. 맛있는 배달 음식은 너무나 많고 맛있는 술 또한 너무나 많다. 당신은 그것을 고르기만 하면 된다. 은은한 조명 속에서 맛있는 음식과 함께하는 술 한잔! 당신은 또 다른 자신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할지도 모른다.

– 준비해두면 기분이 UP : 은은한 조명, 맛있는 배달 안주, 좋아하는 술

무서울 게 없잖아, 함께라면 즐거워!

3인 이상 가족의 홈캉스

사색을 즐기고 싶다면 홈도서관

이토록 좋은 교육이 또 어디 있을까? 가족 모두가 마음에 드는 책을 한 권씩 고르고 마치 도서관에 온 듯 마음에 드는 장소에 걸터앉아 독서를 시작해보자. 아빠는 포근한 소파에, 엄마는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창가에, 아이는 바닥에 배를 깔고 엎드려 빠져드는 독서의 세계. 이 도서관에는 당신 가족뿐이기에 조금 큰 소리의 대화도 가능하다. 독서가 끝난 후에는 장소를 옮겨 식탁이나 책상에서 읽은 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길 추천한다.

– 준비해두면 기분이 UP : 좋아하는 책, 맛있는 간식

텐트 하나만 있다면 홈캠핑

집에서라고 캠핑을 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사실 캠핑의 묘미인 불을 피울 수 없으니 즐거움이 약간 떨어질 수 있지만 가족과 함께라면 그 정도는 충분히 상쇄시킬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은은한 조명 속 거실 가운데 텐트를 치고 캠핑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불 피우는 것을 제외한)을 준비해보자. 얼음이 가득 든 양동이에 갖가지 음료를 채워 넣고 캠핑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준비해 그 분위기에 취한다면 당신의 거실이 바로 캠핑장이 될 것이다.

– 준비해두면 기분이 UP : 캠핑용품

지금을 남기고 싶다면 홈사진관

함께 행복한 순간을 남기고 싶다면 사진이 제격이다. 기술이 발전해 휴대폰으로도 얼마든지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으니 준비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다. 다만 조금 더 사진관 기분을 내고 싶다면 서랍 속에서 카메라를 꺼내보자. 홈도서관에서 추억을 한 장 '찰칵', 홈캠핑에서 추억을 한 장 '찰칵'. 순간은 순식간에 흘러가지만 순간을 기록한 사진은 남는다. 가족과 함께 홈캉스를 즐기는 순간순간을 사진으로 남긴다면 시간이 흐른 뒤에도 그 순간을 추억할 수 있을 것이다.

– 준비해두면 기분이 UP : 삼각대, 셀카봉, 폴라로이드 카메라

+ 진심으로 상황을 즐길 줄 안다면 당신이 있는 바로 그곳이 가장 즐거운 곳이다. 상황을 바꿀 수 없다면 마음을 바꿔라. 그리고 즐겨라. 당신의 성공적인 홈캉스를 기원한다. Ⓝ

내 인생에 훅 하고 들어온

나의 인생작

어떤 작품은 금방 잊히고, 어떤 작품은 꽤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 있기도 하고,
또 어떤 작품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을 정도로 강렬한 인상을 남기기도 합니다.
어떤 영화를 본 순간, 어떤 음악을 들은 순간, 어떤 책을 본 순간, 어떤 드라마를 본 순간…
당신 인생의 순간순간을 눈부시게 만들어준 나의 인생작은 무엇인가요?

정리 이다영

인재개발팀

최재환 팀장의 인생 영화를 소개합니다

나의 인생작 : **영웅본색**
감독 : 오우삼 **출연** : 적룡, 주윤발, 장국영

재환적 감상평

'이제 페인트칠과 피카소 그림은 구분할 때가 왔다.' 지금 읽으면 손발이 오그라드는 문구. 때는 1987년 5월 중간고사 무렵, 시험 공부가 너무 하기 싫어 집 안에 널브러져 있던 신문을 뒤적이다 영화 광고 하나가 눈에 띄었다. 너무나 촌스러운 그 문구가 그때는 왜 그렇게 멋있게 느껴졌던지. 시험만 끝나면 무슨 일이 있어도 꼭 보리라 마음먹었던 그 영화(시험에 대한 압박을 그렇게 벗어나고 싶었나 보다). 생전 처음 들어본 개봉관(화양/명화/대지_ 당시 강남에 살았던 탓에 강북 극장은 매우 낯설었다)도 있어빌리티*의 느낌으로 나에게 다가왔다.

시험은 끝났고, 영화를 보기 위한 대장정에 돌입한다. 버스를 세 번이나 갈아타고 갔던 영등포 명화극장. 영화가 상영 중임에도 들어가게 해주는 강북 극장의 낯선 시스템에 놀라기도 잠시, 스크린에는 출소한 송자호(적룡)가 비참한 생활을 하는 마크(주윤발)와 만나는 장면이 펼쳐진다. 앞부분을 보지 못했음에도 그 장면이 왜 그렇게 슬펐는지…. 이제는 되돌아갈 수 없는 15살의 5월은 그랬다.

생소한 지리에 버스도 헷갈려 밤 12시가 넘어 집에 들어가 걱정하시던 어머니께 한창 꾸중을 들었지만 지금도 그때 그 좋았던 기억이 선명하다. 이제는 추억이 되었지만 1980년대 홍콩 누아르의 시작을 알렸던 영화, 〈영웅본색〉을 추천한다.

*** 남들에게 있어 보이게 하는 능력을 뜻하는 신조어, '있어 보인다'와 'Ability(능력)'를 합친 단어**

마음에 남은 영화 속 대사

擁著你, 當初溫馨再湧現
너를 안으니 그때의 뜨거운 우정이 다시 솟아오르고
心裡邊, 童年稚氣夢未污染
마음속 어린 시절의 꿈은 때 묻지 않고 순수했네
今日我, 與你又試肩並肩
오늘의 나, 너와 다시 어깨를 나란히 하니
當年情, 此刻是添上新鮮
그때의 감정, 지금 다시 새로워지네

최재환's Comment

故장국영이 부른 주제곡 當年情의 가사다. 영웅본색의 영문 제목이 〈A Better Tomorrow〉인데, '내일은 더 나아질 거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다들 어려운 요즘 시기에 희망을 가졌으면 한다.

개발지원팀

탁세원 선임연구원의 인생 음악을 소개합니다

나의 인생작 : **비상** 가수 : 임재범

세원적 감상평

이 노래는 직장 생활을 시작한 후 처음으로 해외 파견 근무(전 직장)를 하던 시절 중국에서 우연찮게, 한인 라디오를 통해 들었던 노래다. 당시 노래를 들으면서 가사에 매료되고, 정말 내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참 뭉클했던 기억이 있다. 그 이후 힘들 때마다 노래를 찾아 듣게 되고, 노래를 부르면서 스스로를 반성하고 더 나아가자는 포부를 새롭게 다짐하곤 한다.

마음에 남은 음악 속 가사

나도 세상에 나가고 싶어. 당당히 내 꿈들을 보여줘야 해
그토록 오랫동안 움츠렸던 날개 하늘로 더 넓게 펼쳐 보이며 날고 싶어
이젠 세상에 나갈 수 있어. 당당히 내 꿈들을 보여줄 거야
그토록 오랫동안 움츠렸던 날개 하늘로 더 넓게 펼쳐 보이며
다시 새롭게 시작할 거야

탁세원's Comment

'더 이상 아무것도 피하지 않아'라는 가사는 언제나 삶을 지탱해주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싶다.
아버지께서 항상 해주시는 말씀이 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세계가 어렵고, 모든 분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어렵고 힘들게! 업무에 매진하는데, 움츠렸던 날개를 하늘로 펼쳐 보이며 피하지 않고!! 당당히 내 꿈들을 보여주기 위해, 더욱더 업무에 고군분투하는 넥센인이 될 것을 다짐해본다!

(YP)생산관리파트

신현명 파트장의 인생 책을 소개합니다

나의 인생작 : **푸른 사자 와니니 1, 2** 글 : 이현

현명적 감상평

매년 5월이면 가족들이 동물원에서 주최하는 백일장에 참석해 글도 쓰고 동물도 보는데 올해는 대회가 취소되어 책으로나마 대신하고자 구매했다. 이 책은 무리에서 쫓겨난 어린 사자의 성장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다 읽고 나자 아들은 와니니처럼 세렝게티의 가젤, 임팔라, 버펄로를 사냥하겠다며 인터넷으로 동물들 생김새와 습성을 검색했다. 코로나19 방콕으로 아들과 함께 침대에서 읽었는데, 어린이 도서지만 어른이 읽어도 세상을 살아가는 소중한 가치를 전하는 감동적인 책이라고 생각한다. Ⓝ

마음에 남은 책 속 구절

세상에 쓸모없는 것은 없어
나는 약하지만 우리는 강해

신현명's Comment

아이와 함께 읽으면서 아이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했는데
곱씹다 보니 내게도 정말 큰 귀감이 되는 구절로 남았다.
단순한 구절이지만 왠지 모르게 따뜻한 위안을 받는 느낌이 들었다.

여름

열정으로 똘똘 뭉친

넥센인을 위한 문화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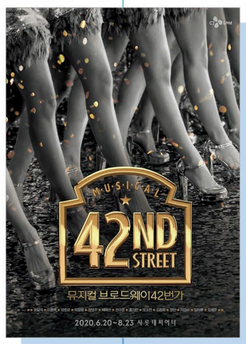
뜨거운 여름엔 뜨거운 열정으로 GO GO GO! 덥다고 처져 있을 수만은 없다. 더위마저 즐길 수 있는 넥센인의 열정으로 여름을 HOT하게 보내기 위한 문화생활을 소개한다.

정리 이다영

이토록 아름다운 순간
어쩌면 해피엔딩

웰메이드 창작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이 여름밤 반딧불처럼 새로운 시즌으로 찾아온다. 반가운 얼굴들도 만나볼 수 있는데, 얼마 전 성황리에 시즌 1을 마친 〈슬기로운 의사생활〉에서 활약한 전미도와 정문성이 주인공으로 캐스팅되었다. 2015 트라이아웃 전 회차 매진, 초연 관객 평점 9.8점을 기록, 제2회 한국뮤지컬어워즈 6개 부문, 제6회 예그린뮤지컬어워즈 4개 부문 석권, 그리고 2020년 1월 미국 애틀랜타 트라이아웃의 성공적 마무리까지. 올여름에는 작품성과 대중성을 양손에 움켜쥔 웰메이트 창작 뮤지컬을 만나보자.

기간 06.30~09.13
장소 서울시 예스24스테이지 1관
문의 1588-5212



쇼 뮤지컬의 결정체
브로드웨이 42번가

송일국, 이종혁, 최정원, 배해선, 전수경, 홍지민 등 역대 42번가를 빛낸 배우들이 총출동하는 것은 물론, 새롭게 합류한 양준모, 정영주, 임하룡, 오세준까지, 24주년을 맞아 최강 캐스팅으로 업그레이드한 〈브로드웨이 42번가〉가 찾아온다. 압도적인 탭댄스 군무와 수십 명의 실력파 앙상블이 함께 만드는 화려한 무대가 눈과 귀를 쉴 틈 없이 사로잡는다. 명성을 이어갈 최고의 히트작 〈브로드웨이 42번가〉를 통해 당신이 꿈꿔온 바로 그 뮤지컬을 경험해보길 바란다.

기간 06.20~08.23
장소 서울시 샤롯데시어터
문의 1588-5212

발레와 만난 셰익스피어의 유쾌한 희극
한여름 밤의 꿈

서울발레시어터의 대표 가족 발레극 〈한여름 밤의 꿈〉이 2020년 돌아왔다. 발레의 대중화를 모토로 대사와 연극적 요소를 곁들인 발레 작품으로 관객 앞에 선다. 클래식 창작 발레에 더해진 유쾌하고 발랄한 사랑 이야기는 관객의 마음을 훔치기에 충분하다. 상상과 현실을 넘나드는 동화 같은 무대와 아름다운 의상까지, 흥미로운 음악과 스토리와 아름다운 발레의 조화를 느끼며 한여름 밤 셰익스피어와 함께 진정한 사랑을 찾아 떠나보는 건 어떨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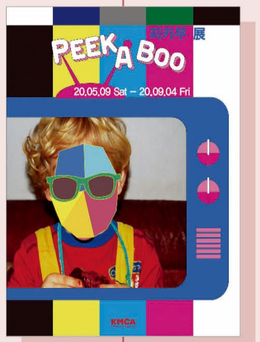
기간 07.25~07.26
장소 부산시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문의 051-607-6000(ARS 1번)

완성형 피아니스트
조성진 피아노 리사이틀

압도적인 재능과 타고난 음악성을 겸비한 완성형 피아니스트 조성진. 빠른 시간 내에 국제적인 수준의 커리어를 쌓아가고 있는 그는 같은 세대 연주자 중 단연 두각을 나타내는 아티스트로 평가받는다. 이지적이면서도 시적이고, 확신에 차 있으면서도 감미로운 그의 연주는 귀족적인 고고함과 순수성이 하나로 결합되어 있다. 연일 매진 기록을 갱신하는 그의 연주회에는 과연 어떤 매력이 숨겨져 있는지 그의 연주를 직접 감상한다면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을 것이다.

기간 2020. 07.12 PM5:00
장소 경기도 천안시 천안예술의전당 대공연장
문의 1566-0155

전시



아이와 함께 세상을 향해 까꿍
피카부(PEEK-A-BOO)

K현대미술관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판타지의 세계 〈피카부〉展은 전시장에 멋진 아트랜드를 설치해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어린이에게는 꿈이 현실이 되는 공간을, 어른에게는 동심을 일깨우는 환상의 세계를 연출한다. 앤디 워홀, 카우스, 파올라 피비 같은 현대 미술작가들의 작품을 오마주한 공간에서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는 본 전시를 통해 다양한 감각을 느끼고 그것을 자신만의 언어와 세계로 재구성해보자.

기간 05.09~09.04
장소 서울시 K현대미술관
문의 02-2138-0952~3

고양이와의 상생
고양이는 다 된다

나와 함께 공존하며 서로 맞추어가는 가족 혹은 친구 같은 존재를 반려동물이라 한다. 그중 좀 더 개별성을 가진 개체로 생각되는 고양이가 이 전시의 메인 테마다. 이번 전시의 주제는 '고양이는 다 된다'로, 내 친구나 가족 같은 고양이에게 뭐든지 해도 괜찮다는, 뭐든지 될 수 있다는 응원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어쩌면 '나'와 같은 고양이를 통해 스스로에게 보내는 위로가 될 수도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을 대신 이뤄주는 존재로서 고양이를 볼 수도 있다. 이 전시를 통해 모두가 새로운 존재 방식을 발견하고 삶을 온전한 방향으로 되돌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기간 05.06~07.25
장소 경남 사천시 리미술관
문의 055-835-2015

시각적 언어로 재탄생한 우주
우주홀릭

(재)경주문화재단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됨에 따라 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 단계 이후 지속해오던 경주예술의전당 알천미술관 휴관 조치를 끝내고, 2020년 어린이갤러리 첫 기획특별전인 〈우주홀릭〉을 5월 12일부터 부분적으로 개막했다. 이번 전시는 '우주'를 주제로 '시간', '공간', '생명체'에 대한 이야기가 시각적 언어로 어떻게 재탄생되는지를 보여주는 전시다. 강재준, 김기연, 김명우, 변지현, 한호 등의 회화, 미디어, 설치, 조각 작가 5명이 참여했으며, 다섯 차원의 우주 공간을 여행하듯이 전시를 관람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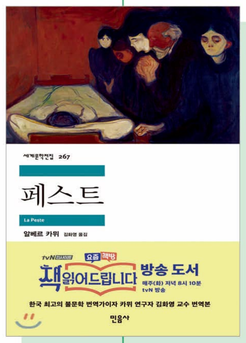
기간 05.12~2021.02.28
장소 경북 경주시 알천미술관
문의 054-748-7724~6

도서

장해주,
엄마도 엄마를 사랑했으면 좋겠어

철 모르던 시절 절대 엄마처럼은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딸은 조금 철이 들고 나자 엄마의 인생을 바라보며 연민과 사랑을 느낀다. 〈엄마도 엄마를 사랑했으면 좋겠어〉는 저자인 12년 차 방송작가 장해주가 독자들에게 위안으로 다가가길 바라며 써 내려간 자신의 이야기다. 치열하게 싸우고 화해하고, 또 사랑하는 이들 모녀의 모습은 세상 모든 엄마와 딸이 평범하고도 소중한 이야기를 함께 그려나갈 수 있도록 큰 공감 속 작은 위로로 다가온다.

#엄마딸 #위로 #잔소리는사랑
#영원한내편이자앙숙 #오래오래함께



알베르 카뮈,
페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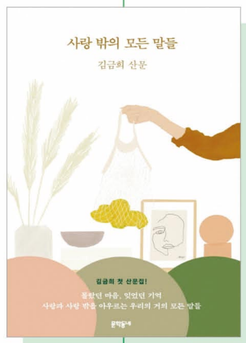
전염병으로 도시가 황폐화되어가고, 이별과 고립의 상황을 마주한 사람들의 심리는 점점 극한으로 치닫는다. 〈페스트〉는 극한의 절망과 공포 속에서 다양한 인간 군상을 보여주며 그 과정을 관찰자의 시선으로 담담하게 그려간다. 현재의 코로나19 사태와 맞물려 사투를 벌이고 있는 2020년의 사람들이 '페스트'에 좌절하지 않고 맞서는 인물들을 통해 '긍정'이라는 희망과 응원의 메시지를 얻기를 바란다.

#극한의절망 #전염병
#각자의재앙대처법 #죽음 #폐쇄된도시

이도우,
밤은 이야기하기 좋은 시간이니까요

오래도록 기억되는 쓸쓸하고도 아름다운 풍경들에 관한 이야기를 감성적 산문으로 풀어낸 〈밤은 이야기하기 좋은 시간이니까요〉는 그만의 따뜻한 시선과 깊이 있고 서정적인 문체를 느껴볼 수 있는 책이다. 그의 모든 소설이 그러하듯 천천히 아껴가며 읽고 싶은 이 책은 작가가 오래도록 기억해온 사람, 말, 글, 풍경, 그날의 마음에 대한 따뜻함을 이야기한다. 그만큼 솔직하고 내밀한 이야기가 담긴 작가의 시선을 엿볼 수 있다.

#굿나잇밤인사 #쓸쓸함 #풍경
#책갈피 #지금은깊은밤



김금희,
사랑 밖의 모든 말들

〈사랑 밖의 모든 말들〉은 누구보다 왕성하게 활동해온 김금희 작가의 한 시절을 마무리하는 노작이자 다음을 준비하는 예비작이기도 하다. '사랑과 연애', '가족과 친구', '사회와 노동', '마음과 풍경'으로 나눠 볼 수 있는 이번 산문집은 때론 흘러갔고 때론 버텨냈던 보통의 날들을 내밀한 목소리로 담아냈다. 작가의 작품을 알던 독자에게는 보물상자로, 처음 접하는 독자에게는 무한히 펼쳐질 김금희 세계로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것이다.

#몰랐던마음 #잊었던기억
#황홀한것들 #사랑

허균의 〈홍길동전〉 속 이상향

부안 위도

허균이 〈홍길동전〉을 통해 그렸던 이상 세계 '율도국'의 모티프로 알려진 섬, 위도.
수많은 이야기가 서린 위도는 더 깊숙이 살펴보고 빠져들어야 그 진면모가 나타난다.
굽이굽이 매력을 감추고 있는 골목을 걷고, 탁 트여 가슴까지 시원해지는
관광순환도로를 일주하며 여름날의 위도를 마주했다.

글·사진 조아영 기자

근대 파시(波市)의 흔적이 남은 골목

파장금항을 통해 입도하면 2개의 크고 작은 고슴도치 모양 조형물이 시야에 들어온다. '고슴도치섬'이라는 별명에 걸맞게 여행객을 가장 먼저 반기는 자리에 조성되어 있다. 항구의 조형물뿐만 아니라 위도 곳곳의 포토존에는 고슴도치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어 기념사진을 남기기 좋다.

항구에서 골목을 따라 5분가량 걸어가면 1960년대 조기 파시로 유명했던 위도의 옛 모습을 만날 수 있다. 최만 부안군 문화관광해설사는 "흑산도, 연평도와 더불어 위도 파시는 우리나라 3대 조기 파시로 꼽혔다"며 "칠산어장의 중심지인 위도로 조기떼가 몰려들었고, 이를 어획하기 위해 1,100여 척의 어선이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어 "항구와 마을에는 다방과 술집, 식당, 이발소, 세탁소 등 수많은 가게가 때에 맞춰 문을 열었다"고 말한다.

상인들은 매년 3월부터 6월까지 파시가 서면 이곳에 판잣집을 짓고 임시로 머물며 한철 장사를 했다. 배가 만선이 되어 섬에 닿으면 늘 돈이 돌았기에 '파장금'이라는 지명 역시 파도가 길어지면 금(金), 즉 돈이 모인다는 뜻이 담겨 있다. 고깃배가 건져 올린 조기는 영 광 법성포에서 염장돼 전국으로 판매됐다. 우리가 익히 아는 '영광 굴비'가 탄생한 것도 바로 이때다. '위도 조기'라 불리지 않았던 이유는 위도가 행정구역 개편으로 당시 부안이 아닌 전남 영광에 편입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현재 한갓진 항구 마을이 북적이는 모습을 상상해보기는 쉽지 않지만, 좁은 골목에 그 시절 흔적이 남아 있어 구석구석 둘러볼 만하다. 여인숙 '인천관'은 비교적 외관이 잘 보존되어 있으며, 골목 깊숙이 들어서면 '위도미용실'이라는 커다란 간판이 놓여 있다. 마을 한편에는 우물이 남아 있어 번성했던 시절을 어렴풋이 그려볼 수 있다.

1 '위도미용실'이라 적힌 커다란 간판이 골목에 놓여 있다.
2 조기 파시로 유명했던 위도 파장금항 인근 골목에는 여전히 그 시절 흔적이 묻어난다.
3 섬의 형태가 고슴도치 모양과 흡사해 고슴도치 '위(蝟)'를 사용한 위도의 고슴도치 조형물.
4 위도해수욕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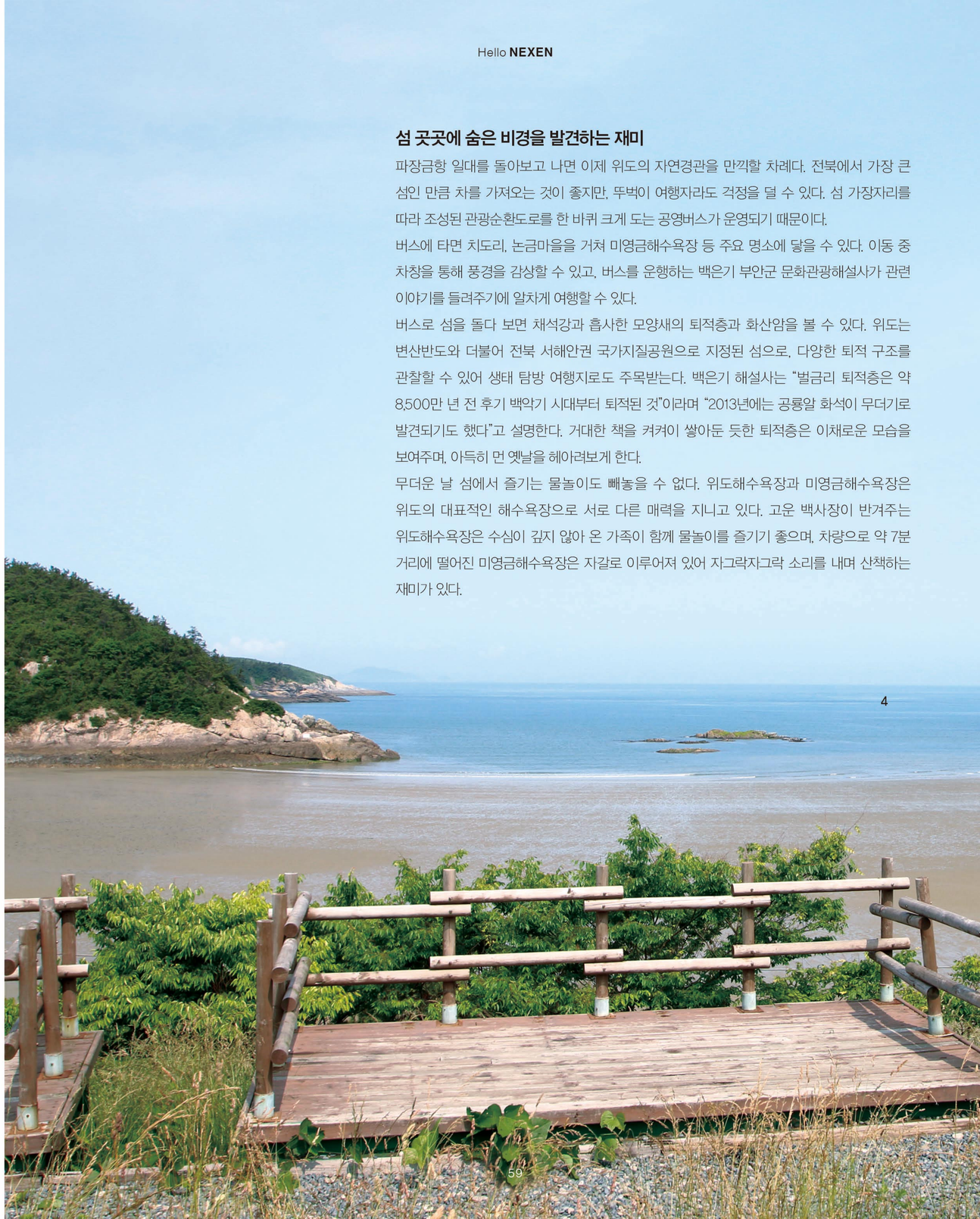
섬 곳곳에 숨은 비경을 발견하는 재미

파장금항 일대를 돌아보고 나면 이제 위도의 자연경관을 만끽할 차례다. 전북에서 가장 큰 섬인 만큼 차를 가져오는 것이 좋지만, 뚜벅이 여행자라도 걱정을 덜 수 있다. 섬 가장자리를 따라 조성된 관광순환도로를 한 바퀴 크게 도는 공영버스가 운영되기 때문이다.

버스에 타면 치도리, 논금마을을 거쳐 미영금해수욕장 등 주요 명소에 닿을 수 있다. 이동 중 차창을 통해 풍경을 감상할 수 있고, 버스를 운행하는 백은기 부안군 문화관광해설사가 관련 이야기를 들려주기에 알차게 여행할 수 있다.

버스로 섬을 돌다 보면 채석강과 흡사한 모양새의 퇴적층과 화산암을 볼 수 있다. 위도는 변산반도와 더불어 전북 서해안권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된 섬으로, 다양한 퇴적 구조를 관찰할 수 있어 생태 탐방 여행지로도 주목받는다. 백은기 해설사는 "벌금리 퇴적층은 약 8,500만 년 전 후기 백악기 시대부터 퇴적된 것"이라며 "2013년에는 공룡알 화석이 무더기로 발견되기도 했다"고 설명한다. 거대한 책을 켜켜이 쌓아둔 듯한 퇴적층은 이채로운 모습을 보여주며, 아득히 먼 옛날을 헤아려보게 한다.

무더운 날 섬에서 즐기는 물놀이도 빼놓을 수 없다. 위도해수욕장과 미영금해수욕장은 위도의 대표적인 해수욕장으로 서로 다른 매력을 지니고 있다. 고운 백사장이 반겨주는 위도해수욕장은 수심이 깊지 않아 온 가족이 함께 물놀이를 즐기기 좋으며, 차량으로 약 7분 거리에 떨어진 미영금해수욕장은 자갈로 이루어져 있어 자그락자그락 소리를 내며 산책하는 재미가 있다.



하이얀 꽃길 따라, 서해를 벗 삼아 걷는 길

위도해수욕장 인근 동산에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하얀 꽃을 피우는 '위도상사화'가 군락을 형성하고 있다. 늦더위가 한풀 꺾이는 8월 하순에서 9월 초순, 위도상사화가 만개할 무렵에는 해마다 '위도섬마을 달빛 걷기 축제'가 1박 2일간 개최되었으나,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축제 여부를 논의 중이다. 그간 개최되었던 축제의 현장에서는 달빛 아래 피어난 새하얀 위도상사화를 감상하고 카메라에 담을 수 있었으며, 보름달 보며 밤새 걷기, 한여름 밤의 콘서트 등 다채로운 행사에 참여할 수 있었다. 달빛 걷기는 파장금에서 출발해 진리와 벌금을 거쳐 위도해수욕장에 도착하는 코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4시간가량 진행된다.

한편 위도는 '산꾼'들에게도 사랑받고 있다. 당일치기 여행이 아닌 1 박 2일 이상 일정의 여행을 계획 중이라면 망월봉, 도제봉, 망금봉 등 섬에 솟은 산등성이를 따라 산행을 즐겨보는 것도 좋다. 발아래로 너른 서해가 펼쳐지고, 깎아지른 듯한 기암괴석을 조망하며 울창한 녹음 사이를 누빌 수 있다. 각 봉우리를 기점 삼아 5~7km 코스를 택할 수 있으며, 종주 코스는 총 14km로 6시간가량 소요된다.

1 세계에서 유일하게 흰 꽃을 피우는 위도상사화.
2 위도상사화가 개화할 무렵에는 위도섬마을 달빛 걷기 축제가 열렸으나,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축제 여부를 논의 중에 있다.
3 위도띠뱃놀이 전시관.
4 내원암 세존전 곁에 자라난 배롱나무는 수령이 약 300년에 달한다.

위도에 깃든 역사와 문화 엿보기

위도면사무소 근처로 걸음을 옮기면 역사적 자취가 묻어나는 위도 관아를 만날 수 있다. 조선시대 위도진의 첨사(수군을 거느려 다스리던 군직)가 근무했던 위도 관아는 도서 지방에 세워졌던 관아 건물 중 유일하게 현재까지 남아 있어 그 의미가 깊다. 당시 진관 건물은 전소되어 사라졌지만 동헌이 남아 있어 천천히 둘러보며 고즈넉한 정취를 느낄 수 있다.

최만 해설사는 "전라 우수영 관할의 수군진이었던 위도 일대는 식수, 해산물 등 군사 식량을 확보하는 보급지이자 군사 요충지로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점했다"며 "이순신 장군 또한 군수 물품을 점검하고 준비하던 시기에 잠시 위도에 머물기도 했다"고 설명한다.

위도의 문화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중요무형문화재 제82-3호 '위도띠뱃놀이'에 대해 알고 싶다면 위도띠뱃놀이 전수관으로 향하길 권한다. 전수관 건물 앞에 자리한 전시관에서는 풍어와 마을의 안녕을 빌었던 띠뱃놀이의 내력과 절차, 띠풀을 엮어 만든 배 모형 등을 살펴볼 수 있다. 띠뱃놀이는 매년 길일인 정월 초사흗날 진행되어, 이날 위도를 방문하면 바다에 띠배를 띄우는 풍경을 볼 수 있다.

전시관 근처에는 고창 선운사의 말사(末寺)인 내원암이 자리한다. 위도팔경 중 제1경으로 '내원모종(內院暮鐘·내원암에서 들려오는 은은한 저녁 종소리)'이 꼽힐 정도로 마음에 평안을 안겨주는 곳이다. 아쉽게도 종은 전란 중 분실되어 그 깊은 소리를 들을 수 없지만, 암자를 거닐며 충분히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세존전 곁에 자라난 배롱나무는 수령이 약 300년에 달하는 이곳의 보호수로, 방문객에게 시원한 그늘을 내어준다. Ⓝ

〈헬로우 넥센〉 사보 속에 숨어 있는 정답을 찾아라

넥 센

Q u i z

〈헬로우 넥센〉을 애독하는 넥센인이라면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퀴즈!
초성 퀴즈에 도전해보세요.
읽었던 내용도 다시 한번, 지나쳤던 내용도 다시 한번,
사보도 보고 퀴즈도 맞히고 선물까지 받아가는 행운을 놓치지 마세요.

글 이다영

넥센타이어 임직원의 소통과 교류를 위한 공간으로
새롭게 오픈한 사내 커뮤니티 사이트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ㄴ ㅁ

힌트 각을 4개 가지고 있는 도형의 다른 이름이기도 하죠.

매년 진행되는 행사로 지난 한 해 동안 국내에서 타이어 판매
확대를 위해 노력한 전국 대리점주들을 초대해 감사를 표하는
행사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ㅌ ㅇ ㅇ ㅇ ㅇ ㅈ

힌트 상을 받는 시상식에는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이 단어는
상의 복수형을 이르는 말입니다.

※ 퀴즈의 정답을 적어서 사진으로 찍은 후 이메일 hellonexen@nexentire.com으로 보내주세요.
퀴즈 정답과 함께 사보 구독 소감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당첨 확률이 높아집니다.
응모하시는 분의 이름과 연락처를 꼭 기재해주세요. 채택되신 분께는 푸짐한 상품을 드립니다.

꿈을 이루지 못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난 재능이 없어. 세상에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이들의 말에 따르자면 성공한 모든 사람들은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큰 성공을 이룬 사람들 중
자신에게 재능이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매우 드물죠.
그저 모두가 입을 모아 이렇게 말합니다.
"재능? 글쎄 잘 모르겠어.
난 정말로 하고 싶었던 일을 열정을 가지고 계속 했을 뿐이야."
이들의 차이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일까요?

열정을 품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잠깐의 불씨? 그 누구라도 마음에 품고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뜨거움을 유지해나가는 것.
열정을 지속시키고 발전시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여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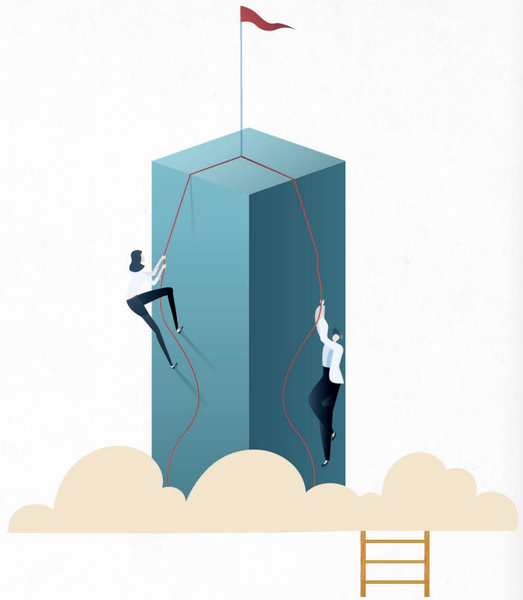
꾸준함으로 열정을 포장하세요.
뜨거운 것은 오래가지 못하지만 성실이 더해진다면
그 시너지는 상상 이상입니다.
당신의 열정이 금방 사그라지는 신기루가 아닌 꾸준함을 통해
꿋꿋하고 굳건한 것으로 거듭날 수 있다면
당신도 언젠가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재능? 글쎄… 하고 싶었던 일을 열정을 가지고 꾸준히 한 것뿐이야."

Passion, 열정이라는 이름

넥센인의 열정에 한 발짝 다가가기

어떤 것에 몰입해 열정을 다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진다면
그건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 아닐까요?
넥센인은 어떤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나요?
넥센인의 Passion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정리 이다영
2020.05.19~05.21, 총 125명 참여(복수응답)



Q 현재 가장 열정을 쏟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일	40명	24.78%
사랑	33명	18.54%
취미	43명	27.94%
공부	21명	10.91%
기타	32명	17.83%

- 육아는 사랑으로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 유민
- 재테크 • 김준홍

Q 넥센인의 열정에 도화선으로 작용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다른 사람의 성공담	10명	7.41%
남들의 무시	1명	0.74%
좋은 글	17명	12.59%
자신의 깨달음	90명	66.67%
기타	17명	12.59%

- 결과에 대한 책임과 사명감 • 박우상
- 자녀의 미래 및 나와 아내의 여유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한 마음 • 문진석
- 우리 가족의 울타리 • 이호재

Q 살면서 자신이 가장 열정적으로 무언가에 몰입했던 기억을 이야기해주세요.

- 과정이 아닌 결과만 중시하는 시각 • 김병갑
- 매 순간순간. 작심삼일이지만 삼일은 열정적임 • 임석봉
- 대학 시절 게임에 빠져 스타크래프트, 디아블로, 삼국지 등 밤새 하고 1~2시간 자고 학교 가고… 만약 그 열정으로 공부를 했다면 서울대는 물론 하버드를 가지 않았을까… • 정해철
- 석사 시절 연구를 수행하면서 몰랐던 사실에 대한 깨달음과 연구를 통해 나온 예측 값들에 대한 신기함으로 더욱더 몰입했던 것 같다. 이것을 통해 내가 공부하고 연구한 분야가 세상 사람들의 삶을 조금 더 편리하게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넥센타이어에 와서도 그때의 기억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업무를 할 때마다 항상 치열하게 공부하고 선임분들의 조언을 통해 많은 깨달음을 얻고 있다 • 상현준
- 캐나다 워킹 홀리데이를 떠나기 전, 무엇이든 많이 경험해보고 싶은 열정에 캐나다 원주민 언어까지 공부한 기억이 있습니다 • 김광수
- 넥센 신입사원 연수 시절 했던 그룹 과제 • 양지원
- 졸업을 위한 대학교 4학년 때 학점 관리 • 김동현
- 결혼 준비 • 이지혜

Q 당신의 열정을 꺼뜨리는 것은 무엇인가요?

끝없는 남과의 비교	20명	14.29%
아무리 해도 안 될 것 같은 부정적인 생각	36명	25.71%
이리 뒹굴 저리 뒹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나태한 몸	40명	28.57%
가장 가까운 사람의 비관적 시각	28명	20%
기타	16명	11.43%

- 과도한 음주 • 최상현
- 비효율 · 불필요한 업무 • 곽진섭

Q 본받고 싶은 열정 만수르는 누구인가요?

열정의 본좌, 대충은 없다. 유노윤호	22명	17.32%
그라운드의 에너자이저, 더 높은 곳을 향해 전력질주하다. 손흥민	30명	23.62%
자기 관리의 끝판왕, 늘 새로운 꿈을 꾸다. 박진영	34명	26.77%
이 시대의 낭만닥터, 생명을 위해 싸우다. 이국종	21명	16.54%
기타	20명	15.75%

- 아내. 하루 종일 육아에 지쳐도 저녁이 되면 다음 날 먹일 유기농 이유식을 만든다며 주방에서 2시간씩 육수를 내고 있는 모습을 보면 존경스러워요 • 임영민
- 국민 마라토너, 끝까지 뛴다. 이봉주 • 조익현

우정과 애정으로 똘똘 뭉친

동료와의 에피소드 대방출

지칠 때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는 이유는 주변에 나를 끌어주고 응원해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 아닐까요?
즐거웠던 일도, 고마웠던 일도 함께해온 동료와의 에피소드를 〈헬로우 넥센〉이 전해드립니다.

정리 이다영

박성준 책임

문화혁신팀
유재훈 책임에게

인사팀
박성준 책임이

올해 우리 팀에서 추진하고 있는 Work & Life Balance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는 데 고민이 많았습니다. 전사 임직원분들의 의견이 다양한 상황에서 CA를 주관하는 문화혁신팀의 많은 격려와 도움을 받았기에 해당 팀 유재훈 책임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싶습니다. 전사 Work & Life Balance 개선을 위해 임직원 입장에서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해주고, 제도 도입에 필요한 캐치프레이즈 등을 만드는 데도 많은 아이디어를 제공해주었습니다. 다행히 기한에 맞춰 6월에 시행할 수 있게 되었기에 참 뿌듯합니다. 문화혁신팀 유재훈 책임은 여행도 좋아하고 독서도 즐기시기에 다양한 책과 여행지를 추천해주었답니다. 특히 문유석 판사가 저술한 〈개인주의자 선언〉은 사회를 살아가는 데 개개인이 취해야 할 합리적 태도에 관한 책입니다. 보다 넓은 시야로 보게 해주고 회사 문화 개선 업무에 많은 도움을 준 유재훈 책임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

유재훈 책임

즐거움의 원천

넥센인의 열정이 빛나는 순간

열정을 따라 마음을 맡긴 순간
사람들은 빛이 납니다.
당신이 아름답게 빛날 수 있었던
열정의 순간은 언제였나요?
넥센인의 반짝반짝 빛나는
순간을 소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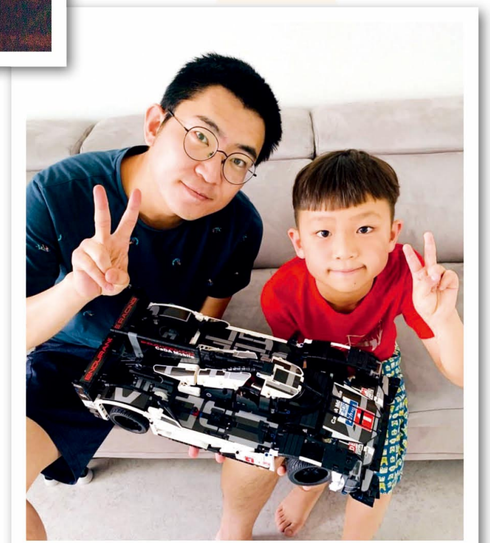
정리 이다영

(YP)설비보전1파트 **이희석 파트장**

주짓수를 배운 지 5년 만에 드디어 블루벨트로 승급했습니다.
같이 배우기 시작한 동료는 이미 퍼플벨트이고…
보통 2년이면 승급하는데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 늦어서
조바심도 났지만 드디어 해냈습니다!
몇 년 전 교통사고로 인한 허리 및 목 디스크 손상,
재활 중 무릎 인대 손상, 족구하다가 넘어져 오른쪽 팔꿈치 골절
등의 연속적인 사고로 3년 넘게 부상과 씨름하고 2020년 1월에
블루벨트로 값진 승급을 했습니다.
재활훈련을 통해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준 관장님,
사범님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고
승급 날 몰래 이벤트 준비한 첫째 딸에게도 고맙다고 전했습니다.

(OE)기술팀 **정창두 선임**

캠핑을 가서 맛있는 저녁을 먹겠다고
열정적으로 새우를 굽고 있는 사진입니다.
화롯대 앞에서 직화로 타지 않게 굽고 있는 열정,
보이시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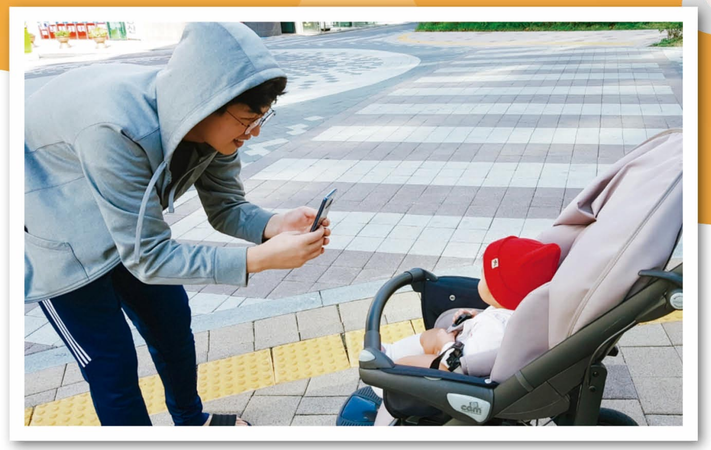


인사팀 **김재영 책임**

어린이날 선물로 레고 테크닉을 해외직구로 구매했는데
역시 9살이 하기엔 무리였습니다.
급 어버이날 선물로 둔갑하여 온 열정을 다해
밤새 만들어 완성했습니다.

(CP)생산기술파트 **박정현 선임**

조금이라도 딸내미 예쁘게 나오게 하려고 열정적으로 사진 찍고 있어요.
딸 사진 찍어주느라 제 사진은 없네요. ㅠㅜ



NEW PLM TFT **신미진 선임연구원**

작년 타이어 아카데미의 타이어 생산 공정에서 팀원들이 짧은 시간 열정을 쏟아 만든 타이어 모형입니다. (1등 했어요!!) 매년 이맘때마다 넥센 아카데미를 통해 여러 부문의 사우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여러모로 아쉽네요. 피닉스 조원분들 모두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정보력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추구하는 디테일한 작업

타이어테크 고색점

타이어테크 고색점 전재현 점장에게서 매장에 대한 애정과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느껴졌다. 젊은 나이에도 어느덧 10년 차인 오랜 경력을 바탕으로 탄탄한 실력을 보유한 그가 수원에서 타이어테크로 새로운 첫걸음을 내딛었다. 그가 만들어가는 고색점은 어떤 모습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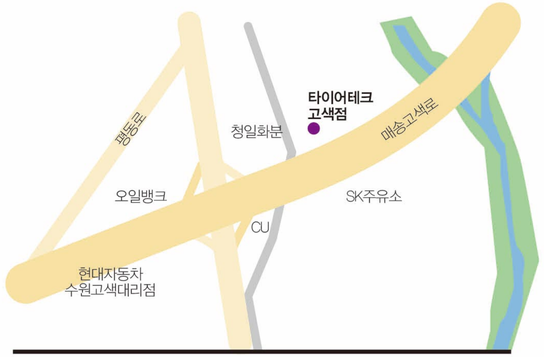
글 이다영 **사진** 이맹호

이제 딱 한 달! 타이트하게 매장을 운영해본 수원의 타이어테크 고색점입니다. 수원에도 타이어 매장은 포화 상태이고 또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이지만, 모든 것은 내가 하기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며 열심히 달려나가는 중입니다. 제 노력의 결실인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좋은 매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매장의 장점을 소개하자면 먼저 깔끔하고 정돈된 매장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픈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새 매장이라 깔끔한 점은 말할 것도 없고, 항상 깨끗한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매일매일 빠지지 않고 청소하고 있습니다. 또 혼자 매장을 운영하고 있어 인건비에 구애받지 않고 좋은 제품을 보다 좋은 가격으로 제공해 고객분들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강점으로 디테일한 작업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격 부담을 덜어드리지만 절대 서비스에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철칙입니다. 저희 매장에 오셔서 서비스를 받고 가신 고객분들은 제가 손봐드린 부분에서 다시 불편함을 느끼시는 일이 없도록 확실하고 꼼꼼하게 작업해드리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더 많은 차를 받아 소득을 올리기 위해 대충 작업하며 시간을 단축하고 싶은 유혹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업계에서 최고로 인정받고 싶은 저로서는 그런 부분을 용납할 수 없으며, 항상 모든 차에 최선을 다해 서비스합니다. 차가 다소 밀려 있다 해도 기다리시는 분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고객 한분 한분께 차의 상태와 작업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해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매장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것은 기술력과 정보력을 바탕으로 한 더 나은 서비스입니다. 다양한 차종에 대한 정보와 각 차량에 맞는 정비 방법은 저만의 재산입니다. 모든 작업은 일단 제 차에 테스트를 해본 후 완벽해지면 고객의 차에 작업하기 때문에 보다 확실하고 정교한 설명이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서비스 시간이 더 걸리긴 하지만, 이렇게 정확한 내용을 전달하는 것은 고객분들과 신뢰를 쌓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좁은 타이어 바닥에서 제 이름 '전재현' 하면 '아! 잘하는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커리어를 쌓으며 매장을 운영해 나가려고 합니다. 경력을 바탕으로 쌓은 실력만큼 고객분들께서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제공해드릴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타이어테크 고색점, 믿고 방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주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매송고색로 805-6
영업시간 월요일~토요일 08:30~19:30
문의 031-291-8986

NEWS

독일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2020'에서 본상 수상

넥센타이어가 독일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2020' 제품 디자인 부문에서 본상을 수상했다고 4월 6일 밝혔다.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는 독일 노르트하임 베스트팔렌 디자인센터가 1995년부터 주관하며 혁신, 심미성, 활용성 등을 심사하는 국제 디자인 공모전으로, 미국의 'IDEA 디자인 어워드', 독일의 'iF 디자인 어워드'와 함께 글로벌 3대 디자인 상으로 꼽힌다.

'엔페라 스포츠' 제품은 3+1의 와이드 그루브를 통해 우수한 배수 성능을 제공하고 고속 주행에 적합한 비대칭 패턴이 특징인 여름용 프리미엄 타이어다. 또한 측면에 3D 홈을 적용, 최적의 설계를 통해 블록 강성을 강화시켜 뛰어난 핸들링을 발휘한다. 여기에 신규 컴파운드를 적용해 접지력과 제동력을 극대화했으며, 빗길뿐만 아니라 마른 노면에서도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는 제품이다. 천경우 넥센타이어 중앙연구소장은 "세계적인 디자인 어워드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것은 넥센타이어의 성능과 품질은 물론 디자인 경쟁력 또한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차별화된 디자인을 적용하여 제품 경쟁력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엔페라 스포츠'는 최근 〈ADAC 모터벨트〉, 〈아우토빌트〉(독일)를 비롯해 〈TCS〉(스위스), 〈ÖAMTC〉(오스트리아) 등 유럽 주요 자동차 잡지에서 실시한 테스트에서 '구매 추천' 이상의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제품의 품질과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NEWS

뛰어난 승차감을 구현하는 '엔페라 프리머스 AS T1' 출시

넥센타이어가 중대형 세단용 프리미엄 타이어인 '엔페라 프리머스 AS T1'을 출시해 프리미엄 시장 공략에 나선다. 넥센타이어는 "최근 국내 고급 세단 및 수입차의 승차감과 성능, 안정성이 대폭 강화되고 있는 트렌드에 맞춰 성능뿐 아니라 디자인까지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프리미엄 타이어 '엔페라 프리머스 AS T1'을 출시한다."고 4월 20일 밝혔다.

'엔페라 프리머스 AS T1'은 국내 지형과 중대형 세단에 최적화된 안정된 피치 배열을 통해 소음을 제어하고 다양한 드라이빙 환경에서 뛰어난 승차감을 제공한다. 여기에, 개선된 트레드 컴파운드와 강화된 블록 강성으로 마일리지 성능을 강화하여 사계절 오랜 주행을 가능케 했다. 또한, 제품의 사이드월에는 서클 웨이브 기법을 통해 제품의 컴포트 속성을 구현했으며, 쿨링핀 기술 적용으로 효과적인 열 배출을 도와 고속주행 시 안정성을 강화했다.

'엔페라 프리머스 AS T1'은 넥센타이어 전문 유통 브랜드인 '타이어테크' 매장에서 구입가능하며, 기존 '엔페라' 제품과 마찬가지로 구매일로부터 1년간 고객의 과실에도 타이어를 교환해 주는 '엔페라 新 명품보증제도'의 혜택을 제공 받을 수 있다.

NEWS

업계 최초 비대면 타이어 방문 교체 서비스 '넥스트레벨 GO' 광고 캠페인 전개

넥스트레벨 GO 디지털 광고 캠페인 - 당신을 위한 비대면 서비스 (왼쪽) '직장인'편 / (오른쪽) '슈퍼 맘'편 | 프로야구 가상광고 - 넥스트레벨 GO '방문교체'편

넥센타이어가 업계 최초 비대면 타이어 방문 교체 서비스 '넥스트레벨 GO'의 광고 캠페인을 전개한다. 넥스트레벨 GO는 타이어 전문가가 최첨단 장비를 구비하고 고객의 차량이 위치한 장소를 방문해 고객과 대면하지 않고도 타이어를 교체하는 신개념 서비스로, 국내 타이어 업계 최초의 비대면 타이어 방문 교체 서비스다. 먼저 넥센타이어는 '당신을 위한 비대면 서비스'라는 주제로 디지털 매체를 활용한 광고 캠페인을 6월 16일부터 새롭게 선보였다. 시간적 여유가 없는 '직장인' 편, '슈퍼 맘' 편 등 소비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총 4편의 에피소드를 통해 바쁜 일상에서 타이어 방문 교체 서비스가 필요한 상황을 현실감 있게 그려냈다. 이와 함께 프로야구 TV 중계 중에도 가상 광고를 진행하여 브랜드 노출을 확대한다. 현재 넥센타이어 공식 유튜브에서 1,250만 이상의 조회 수를 기록하고 있는, 지난 3월 론칭한 '넥스트레벨 GO, 방문교체' 편을 기반으로 광고를 제작해 소비자에게 브랜드 친근감을 더욱 강화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넥센타이어는 광고 캠페인 론칭을 기념하여 공식 SNS를 통해 6월 16일부터 21일까지 이벤트를 진행했다. 넥센타이어 페이스북과 카카오채널, 넥스트레벨 인스타그램을 통해 중복 참여 가능했으며,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차량용 방향제 및 편의점 이용 할인권을 증정했다.

NEWS

뛰어난 내마모 성능과 주행 안정성을 갖춘 신제품 '마일캡 2' 출시

넥센타이어가 국내 지형과 기후 특성에 맞춰 마일리지 성능을 극대화한 사계절용 타이어 '마일캡 2'를 6월 22일 출시했다. 넥센타이어는 "최근 마모 수명 향상을 위한 마일리지 성능뿐만 아니라 주행 안정성까지 중요하게 생각하는 고객의 트렌드에 맞춰 합리적인 소비자와 영업용·법인용 차량에 적합한 사계절용 고성능 제품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마일캡 2'는 내마모 중심형 신 구조로 기존 제품보다 더욱 길어진 마일리지를 자랑한다. 내마모성을 극대화한 와이드 보디를 채용해 제품 내구성을 강화했으며, 도로와 접지되는 트레드의 면적을 기존보다 넓혀 하중을 고르게 배분해 편마모를 완화함과 동시에 마모 성능을 대폭 업그레이드했다. 또한 타이어 숄더 부위를 강성 업그레이드해 주행 성능과 핸들링 성능을 강화했고, 최적화된 사이프(타이어 표면에 새겨진 미세한 가로 홈) 설계와 넓은 그루브(타이어 표면의 굵은 세로 홈) 디자인을 적용해 마모 후에도 접지력과 제동 성능을 일정 수준 유지한다. '마일캡 2'는 넥센타이어 전문 유통 브랜드인 '타이어테크' 매장 및 타이어 대리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 Ⓝ

참여해주세요

Ⓝ 〈헬로우 넥센〉에 참여를 원하는 분은 사연을 보내주세요.

▶ 우리 팀 및 동호회 자랑하기
▶ 가족과 특별한 시간 보내기
▶ 동료와 함께 추억 만들기

참여 및 도움을 주신 분께는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 넥센타이어 홈페이지(www.nexentire.com) 독자 게시판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QR코드를 확인하시면
독자 게시판으로 연결됩니다.

Ⓝ 〈헬로우 넥센〉 구독 및 구독 정보 변경을 원하시는 사내외 독자는 넥센타이어 홈페이지의 사보 게시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보 담당자 문화혁신팀 김희진 책임
hellonexen@nexentire.com

〈헬로우 넥센〉 독자 당첨자

박명규, 이진호, 유신동, 박병규, 김정진

2019 글로벌 고객만족도
타이어 부문 10년 연속 1위

NEXEN 넥센타이어

타이어렌탈로

알뜰하게 타이어 교체해보세요

타이어 렌탈만의 장점 BIG 3 !!

01 목돈 부담없이 타이어 교체!

02 계약 만료되어도 타이어 반납 없이 이용!

03 제휴카드 이용 시, 공짜로 타이어 렌탈!

지금 가까운 렌탈전문점에 문의해보세요!

고객센터 1855-0100
타이어렌탈

NEXT LEVEL
RENTAL

www.nexentire.com

2020 NEW PRODUCT
NEXEN TIRE

N FERA Primus AS T1

승차감의 새로운 솔루션

다양한 드라이빙 환경에서 느껴지는 안락한 승차감

사계절 오랜 주행이 가능한 뛰어난 마모 성능

고급 세단을 위한 럭셔리 디자인

최적화된 피치 배열을 통한 소음 제어 및 우수한 승차감 구현

쿨링핀 기술 적용으로 효과적인 열 배출을 통한 뛰어난 고속주행 안정성 강화 및 마모성능 향상

사이드월 부 유려한 써클 웨이브 기법으로 제품의 컴포트 속성 구현

엔페라 新 명품보증제도

※ 제품 4개 구매 시 보증서 1매 제공 / 구매일로부터 1년간 엔페라 新 명품보증제도 혜택 제공
※ 자세한 내용은 넥센타이어 홈페이지 (www.nexentire.com)내 보증제도 안내 내용 참조

PREMIUM WARRANTY ★ ONE YEAR ★ 엔페라新명품보증제도

NEXEN TIRE